

Journal of Planning and Spatial Science

ISSN 2384-2857 / 제16권 제1호 / 2021년 6월

국토도시공간연구

Journal of Planning and Spatial Science

한양대학교
국토·도시개발정책연구소

Hanyang Univ. · The Research Institute of Spatial Planning and Policy

국토·도시개발정책연구소 운영위원

연 구 소 장	김 홍 배	도시공학과	연구소 총괄 운영
관 리 실 장	김 홍 순	도시공학과	연구소 중간관리
상 임 연구원	김 홍 배	도시공학과	지역개발
상 임 연구원	오 규 식	도시공학과	환경계획 및 GIS
상 임 연구원	이 창 무	도시공학과	도시 및 부동산경제
상 임 연구원	김 홍 순	도시공학과	도시공간계획
상 임 연구원	박 진 아	도시공학과	도시설계
상 임 연구원	이 수 기	도시공학과	도시설계 및 공간분석
상 임 연구원	이 명 훈	도시대학원	토지이용
상 임 연구원	구 자 훈	도시대학원	도시건축설계
상 임 연구원	최 창 규	도시대학원	도시설계분석

국토도시공간연구 편집위원

위 원 장	김 홍 순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soon@hanyang.ac.kr
위 원	김 홍 배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hokim@hanyang.ac.kr
	이 명 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mhlee99@hanyang.ac.kr
	최 창 규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cgchoi@hanyang.ac.kr
	이 수 기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sugielee@hanyang.ac.kr

국토도시공간연구

제16권 제1호

광주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 사업의 편익추정에 관한 연구	01
한성민 · 김나리 · 김홍순	
동종업종과 이종업종의 군집이 편의점 매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서울시를 중심으로 -	12
이가문 · 성은영 · 김경수 · 최창규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 관광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다지역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여-	21
홍인영 · 김홍배	
도시재생사업의 주민주도 운영 앵커시설의 필요성과 만족에 관한 이용자 인식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 5개 근린재생 일반형 사업지역 중 상도4동, 성수, 암사를 대상으로-	34
박재라 · 구자훈	
 [연구소 소식]	
논문집 발간 계획 및 투고 안내	47

2021년 6월
국토 · 도시개발정책연구소

Journal of Planning and Spatial Science

Volume 16, Number 1

[Articles]

- Estimating Public Benefits of the Biennale Symbolic International Town
Construction Project in Gwangju 01

Han, Sung-Min · Kim, Na-Ri · Kim, Heung-Soon

- Impact of The Clustering between Homogeneous and Heterogeneous
on Convenience Stores Sales 12

Lee, Jia Wen · Seong, Eun-Yeong · Kim, Kyung-Soo · Choi, Chang-Gyu

- An Analysis of the ripple effect of Demographic Change
on the Local Tourism Industry
- Using a Many-regional input output model - 21

Hong, In-Young · Kim, Hong-Bae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User's Perception on the Necessity and
Satisfaction of Anchor Facilities for Resident-led Operation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 Among the five neighborhood regeneration general business areas
in Seoul, Sangdo 4-dong, Seongsu, and Amsa - 34

Park, Jae-Ra · Koo, Ja-Hoon

[RISPP News]

- Editorial Office 47

2021. 6

The Research Institute of Spatial Planning and Policy

ISSN 2384-2857 / 제16권 제1호 / 2021년 6월

국토도시공간연구

Journal of
Planning and Spatial Science

광주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 사업의 편익추정에 관한 연구*

Estimating Public Benefits of the Biennale Symbolic International Town Construction Project in Gwangju

한성민**, 김나리***, 김흥순****

Sungmin Han · Nari Kim · Heungsoon Kim

Abstract

This study estimated the public benefits of 'the Biennale Symbolic International Town Construction Project' underway in the Gwangju Metropolitan City. In the estimation of benefits, non-market benefits were analyzed by CVM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project. As an analysis method, the amount of payment was estimated from the survey data based on the double bounded dichotomous choice questionnaire. The survey was conducted by sampling the entire population according to the proportion of population by region. The survey respondents generally do not know much about the project and the intention to pay is not high.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were found to be consistent. As a result of analysis, the total benefit incurred for 5 years after the project was started is estimated to be about 36.4 billion won.

키워드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편익추정, 조건부 가치추정법

Keywords Biennale Symbolic International Town, Benefit Estimation,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문화체육관광부(2013)는 국민들이 전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자유롭게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한 실행계획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2013~2023)」을 수립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1천2백억원 가량의 총사업비(국비 약 4백억원, 시비 약 5백억원, 민자 약 4백억원)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엄격한 경제성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한국개발연구원, 2016).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을 활용하여 이 사업의 편익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광주 비엔날레사업이 진행되는 광주광역시 북구 중외공원 및 용봉지구 일원으로 전체 면적은 927,362㎡(중외공원 822,233㎡, 용봉지구 105,129㎡)이다. 그림 1은 사업지구의 위치도이다. 분석에 있어 분석시점은 2015년말, 지불기간은 5년으로 할인율은 당시 사회적 할인율인 5.5%를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분량 및 대책사업의 기밀성을 고려하여 전체 경제성분석 중 편익 추정 과정과 금액만을 보고하고자 한다.

경제성 분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고려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업이 공원 및 문화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비시장재의 가치를 추정하는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일반 납세자 중 설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불용의금액을 추정하였다. 조사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사전조사는 100가구, 본 조사는 1000가구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와 함께 설문 최적화를 위해 전문가 자문을 수행하였으며, 설문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표적집단토론회를 실시하였다.

* 이 논문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2016)에서 발간한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중 편익추정 부분을 정리한 것임

** Research Fellow, KDI

*** Researcher, Seoul Institute

**** Professor, Hanyang University(Corresponding Author: soon@hanyang.ac.kr)



Fig. 7 Location of the Planning Site

Table 1. Overview of the Biennale Symbolic International Town Construction Project

구분	주요내용
사업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중외공원 및 용봉지구 일원
사업물량	부지면적: 927,262㎡(중외공원: 822,233㎡, 용봉지구 105,129㎡)
주요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엔날레 문화지구 조성(비엔날레 자료관 건립, 가로환경 조성사업) - 진입광장 개선, 자연예술지구 조성 - 파빌리온 30개관 조성 - 공방촌 및 창작 스튜디오 20개소 건립 - 주차장 설치(시민광장 인근 200대, 생태주차장 754대) - 박물관 권역 연결 브릿지 조성 - 터널 개선
총사업비	1,175억원 - 국고: 384.5억원(32.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회계) - 시비: 470.5억원(40.1%) / 민자: 320억원(27.2%)
사업기간	2016~2023년(8년)
운영	- 비엔날레 자료관 (재)광주비엔날레(단, 재산관리는 광주시립미술관) - 시민광장, 야외광장: 광주민속박물관(단, 재산관리를 광주시립미술관) - 기타 시설: 광주시립미술관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출처: 한국개발연구원(2016: 66)

총사업비가 요구되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표 1 및 그림 2와 같다.

3. 사업의 추진 경위 및 개요

2004년부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된 이후,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립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2013~2023)」의 세부 항목으로 '시각 미디어 문화권 중외공원 일대'가 포함되면서 본사업의 계획이 추진되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 2011년 총사업비 181억원의 '비엔날레 문화지구 조성 기본계획'이 제시되었으나, 이후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 기본계획'으로 수정되었으며, 그 변경 사항이 2013년 5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2013~2023)」에 반영되었다. 이후 2013년 9월 광주광역시에 의해 작성된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총사업비 1,175억원의 본 사업 규모가 추정되었으며, 이를 대상으로 본 분석이 진행되었다.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 사업은 광주광역시 북구 중외공원 및 용봉지구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본 사업은 2016~2023년까지 계획되었고, 본 사업을 위해 1,175억원의



Figure 8. Development Plan

Source: Gwangju Metropolitan Government(2013)

Table 2. Classification of Economic Value

가치의 분류		내 용
사용가치		재화의 이용으로 인한 효용이 주는 만족감
비사용 가치	선택가치	미래의 이용 가능성을 위해 보존함으로써 느끼는 만족감
	존재가치	이용가능성과 무관하게 재화의 존재자체로 인해 느끼는 만족감
	유산가치	재화가 미래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오는 만족감
	대체가치	타인이 재화를 대신 이용함으로써 얻는 만족감

II. 이론적 검토

1. 경제적 가치와 비사용가치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의 경제적 가치는 사용가치(use value)와 비사용가치(non-use value)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둘의 합을 동시성이 주는 총가치(total value)로 고려할 수 있다. 사용가치는 직접사용가치(direct use value)와 간접사용가치(indirect use of value)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주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편익을 의미한다. 한편 비사용가치는 경제주체들의 실질적인 이용 없이 시설의 존재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하는데, 이는 선택가치, 존재가치, 유산가치, 대체가치로 분류할 수 있다.

각각의 비사용가치의 의미를 살펴보면, 선택가치는 현재는 이용되지 않으나 미래에 이용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불 용의가 있는 기대가치를 의미한다. 존재가치는 현재와 미래의 이용과 무관하게 대상 재화가 계속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로부터 인식되고 발생하는 가치이다. 한편 유산가치는 존재가치와는 별도로 재화의 이용가능성은 없지만,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하고자 하는 잠재적 이용가치를 의미한다. 대체가치는 자신은 재화를 이용하지 않지만, 타인이 대신 사용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을 의미한다. 이상의 비사용가치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과 같은 공공재는 비용을 지불하

지 않고 소비하려는 사람을 배제할 수 없는 비배제성을 띠며, 동시에 개인의 재화 소비가 다른 소비자의 소비가능성을 줄이지 않기 때문에 서로 경합을 할 필요가 없는 비경합성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본 조사에서는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이 건립되는 것을 가상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전적 가치를 추정해야 하므로, 편익을 추정하는데 있어 비시장재의 가치추정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편익 추정 방법

1) 비시장 편익의 추정방법 구분

비시장 재화에 대한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은 연구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다양하다. 비시장 재화의 편익 추정방법으로는 개인들의 행동으로 나타난 선호를 추정하는 현시선호 접근법(Revealed Preference Method : RP)과 가상 상황을 설정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통해 가치를 추정하는 진술선호 접근법(Stated Preference Method: SP)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현시선호 접근법

현시선호접근법은 평가대상인 비시장재가 기술적 혹은 구조적인 관계가 있는 시장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비시장재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기법이다. 구체적으로는 여행비용접근법(Travel Cost Method: TCM), 헤도닉 가격 접근법(Hedonic Price Method: HPM), 회피행위접근법(Averting Behavior Method: PBM) 등이 있는데, 적용대상 에 일정한 제약이 있다. 현시선호 접근법은 비시장재의 가치

Table 3. Estimation of Non-Market Benefits

구분	가치 측정방법	비고
현시선호접근법 (RP)	여행비용접근법(Travel Cost Approach)	시장에서의 거래행위 관찰을 통한 사후적 평가법
	헤도닉 가격접근법(Hedonic Price Approach)	
	회피행위접근법(Averting Behavior Approach)	
진술선호접근법 (SP)	조건부가치추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RP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보완적 적용 추천
	선택모형(Choice Modeling)	

추정을 이미 실현된 자료에 의존하여 도출하는 사후적 평가라는 특징이 있다.

3) 진술선호 접근법

진술선호 접근법은 비시장재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가상으로 설정하여 비시장재에 대한 지불의사를 직접 표현하도록 하는 기법이다. 적용대상의 제약이 거의 없으며, 이론적인 근거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진술선호 접근법을 통해 추정되는 비시장재의 가치는 현실적인 행동에 의해서가 아닌, 행동의도에 의거한다는 점에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진술선호 접근법은 조건부가치추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과 선택모형(Choice Modelling: CM; Choice Experiment: CE)으로 대표된다.

III. 실증분석

1. 분석의 틀

1) 개요

이론고찰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사업에 있어 내국민의 비시장적 편익 추정의 방법론을 선정하기 위해 여러 방법론을 검토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사업의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 현시선호접근법(RP)보다는 진술선호접근법(SP)을 활용하고자 한다. 현시선호접근법(RP)은 시장에서의 거래행위를 관찰하여 비시장 편익을 추정하는 사후적 평가법인데,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 사업은 분석 시점에서 아직 실행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기법을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다. 더 나아가 본 조사에서는 평가의 관점이 다양한 비시장재의 가치를 개별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의 전반적인 측면에서의 평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진술선호 접근법 중에서도 조건부 가치 추정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2) 조건부 가치 추정법

(1) 정의 및 특징

조건부 가치 추정법은 가상의 시장을 설정하여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이다(김홍배, 2006). 이 방법은 공공재의 개선 및 신설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화폐 금액으로 응답받음으로써 사람들의 비시장재에 대한 선호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도출된 지불의사금액은 응답자가 가상으로 생각한 조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조건부(상황적) 가치 추정

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 CVM)이라고 한다.

한편, 조건부 가치 추정법에서는 비시장재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지불의사금액(Willing to Pay : WTP) 또는 수취의사액(Willing to Accept : WTA)을 질문한다. 이때, 지불의사금액은 비시장재의 개선된 상태를 가상하여 응답자가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며, 수취의사액은 비시장재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재화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상하는 집단들이 이를 수용하는데 대한 보상으로서 수취할 수 있는 금액 수준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가치추정법에 있어 가이드라인으로 준용되는 NOAA의 지침을 토대로 과대평가의 가능성이 있는 WTA가 아닌 WTP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문을 구성하였다.

3) 설문 설계

조건부 가치추정법은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응답자에게 지불의사금액을 묻는 방식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설문조사자의 의도가 응답자의 응답에 반영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응답자가 선택 지불의사금액을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실제 지불의사금액과 다르게 응답할 수도 있다. 이러한 조건부 가치추정법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설문 설계 방법으로 직접 질문법, 경매법, 지불카드방법, 양분선택형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 방법들 역시 일정한 약점과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양분선택형 설계는 여타 직접 질문법, 경매법, 지불카드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다. 양분 선택형 설계는 단일 양분 선택형과 이중 양분선택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단일 양분 선택형에서 설문 응답자는 제시된 금액에 대해 '예' 혹은 '아니오'로 응답한다. 이때, 제시되는 금액은 파일럿 설문조사 등을 통해 최종 지불의사 금액으로 예상한 금액이다. 설문 응답자들은 제시된 금액이 자신의 지불의사금액과 같거나 작으면 '예'로 대답하고, 큰 경우는 '아니오'라고 대답한다. 한편 이중 양분선택형은 단일 양분 선택형에 한 차례의 질문을 추가한 것으로 만약 첫 번째 질문에 설문 응답자가 '예'로 응답하면 첫 질문에서 제시했던 금액의 2배를 제시한다. 반면, 설문 응답자가 첫 질문에 '아니오'로 응답한다면 이어 첫 질문에서 제시했던 금액의 절반을 제시한다. 양분 선택형 질문은 경매법이나 지불카드방법과 비교하여 정확성이 저하된다는 단점과 응답 결과를 logit 모형이나 Probit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해야 한다는 복잡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양분선택형 기법은 전략적 편익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출발점 편이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다양한 설문 설계 중 가장 신뢰성이 높으며 바람직한 방법으로 고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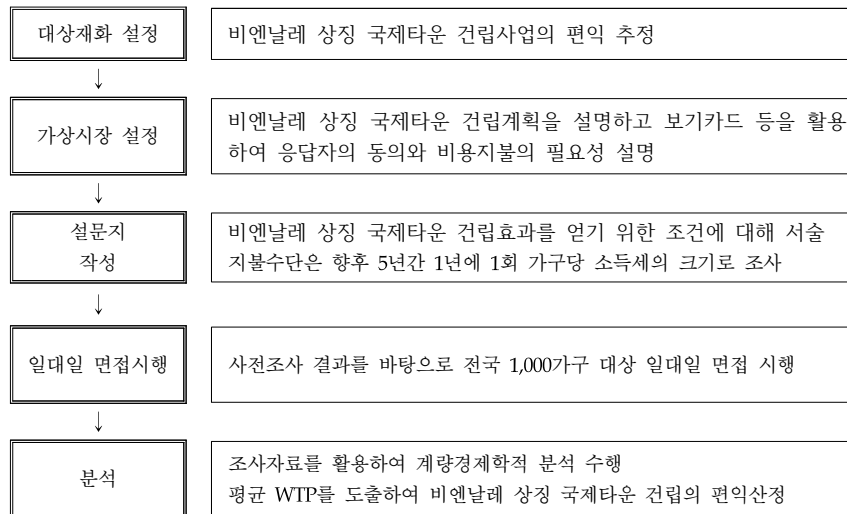


Figure 3. Procedure of Survey and Analysis of This Study

2. 편익추정 과정

1) 개요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가치추정법을 활용하여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사업의 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지불의사금액을 측정하며 궁극적으로 해당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다. 설문조사에 있어서는 설문 응답자가 ‘예’, ‘아니오’로 응답하는 양분선택형(Dichotomous Choice) 질문을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설명과 사진의 제시를 통해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동시에 설문 응답자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의도하였다.

조건부가치추정법에 의한 설문조사는 크게 조사 기획단계와 조사 실시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조사 기획단계에는 대상 재화 및 가상시장 설정, 자료의 수집, 설문지 작성 작업이 해당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1차로 작성된 설문지를 토대로 소규모 그룹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제시금액을 확정된 후 본 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조사 실시단계에서는 설문 면접원 교육, 설문 실시, 자료입력 등의 작업이 진행되며, 이 단계를 거쳐 WTP 함수 추정 및 편익 측정의 단계로 넘어간다. 그림 3은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건립에 따른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실제로 적용한 실증연구절차를 요약한 것이다.

2) 대상재화 선정 및 시나리오 작성

본격적인 설문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건립사업에 대한 가상시장을 설정하는 작업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설문응답자의 지불의사금액을 묻기 전, 응답자에게 조건부 시장의 일반적 상황을 제시하면서 대상재화에 대한 인지도 및 견해에 관한 질문을 제시한다. 이어서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건립계획의 현재 상태, 즉 사업 시행 이전 상태와 사업 시행 후의 기대효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보기 카드를 활용하여 설문응답자들의 이해도 향상을 의도하였다.

3) 지불수단 선택

이 단계에서는 설문응답자가 지불의사를 용이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불수단을 제시한다. 설문응답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지불수단으로 시장을 설정하는 것은 가상적 상황을 보다 현실화시키며 응답자의 지불의사금액을 보다 정확하게 유도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한다. 특정 지불수단의 결정은 첫째, 평가하고자 하는 재화와의 관련 정도, 둘째, 응답자의 지불의사금액 결정을 단순화할 수 있는 정도, 셋째,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편익을 제거할 수 있는 정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조사에서는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건립사업의 확충을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지불하는 가구당 총 소득세의 증가라는 지불수단을 제시하였다.

4) 지불의사유도방법

본 조사에서는 양분선택형 질문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전략적 편익과 무응답률 그리고 이상치가 상대적으로 적

Table 4. Design of Proposed Amount

제시금액(원)	1,000	2,000	3,000	4,000	5,000	합계
표본수(가구)	200	200	200	200	200	1,000

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NOAA 패널에서도 추천하는 방법이다. 뿐만 아니라 이 방법은 응답자가 대답하기 용이하며 응답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본 조사에서는 이중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사용하여 단일양분선택형 질문의 장점을 살리면서 WTP 추정치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이 방법은 단일양분선택형 질문보다 응답자들의 지불의사 범위가 넓기 때문에 통계적 효율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양분선택형 방법은 응답자가 설문 면접원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예'라고 대답하는 경우와, 반복된 질문에 지루함을 느껴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5) 제시금액의 설계

양분선택형 질문법의 적용 시 제시금액의 범위와 분포는 CVM 문항의 응답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도출된 WTP의 분포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 깊은 실험설계가 필요하다.

본 조사에서는 실제 설문조사를 수행하기 전 임의추출방식을 사용하여 소규모로 사전조사를 수행하였다. 사전조사에서는 100가구를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을 통해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건립사업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질문하였다. 이에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 분석지침 개선연구 지침에 따라 15%에서 85%의 범위에서 총 5개의 초기 제시금액을 결정하였다. 결정된 초기 제시금액에 실제 설문조사에 응답할 응답자를 무작위로 할당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4와 같다.

6) 표본 설계

본 조사는 소득이 있는 가구주 또는 배우자를 조사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건립사업의 편익을 추정하기 위한 지불의사금액(WTP) 도출을 목적으로 '가구 총소득세'를 활용하였다. 2015년 12월 28일부터 2016년 1월 6일까지 수행된 사전 조사는 1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2016년 1월 11일부터 1월 22일까지 진행된 본조사에서는 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수행되었다.

대부분의 비정형사업들은 비사용적 가치를 포함하기 때문에 전 국민을 모집단으로 설정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제주도를 제외한 전 국민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지불수단이 '가구 총 소득세'이므로 본 조사의 기본적인 단위는 가구가 적절하며, 조사 대상자는 가구 소득세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가구주 또는 배우자로 한정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응답 가구 수를 배분하기 위해 지역별 가구 수 비율을 기준으로 조사대상을 층화 추출하였다. 층화 추출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광역시·도별 가구수 비중에 따라 1단계 층화 추출을 하고, 이어서 각 광역시·도의 구 또는 시 단위 가구 수 비중에 따라 2단계로 층화 추출을 하였다. 표 5는 모집단 가구 수 비중과 이에 따라 층화된 표본 수를 기술한 내용이다.

전술하였듯이 작성된 설문 초안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

Table 5. Sample Design for Survey

지역구분	가구 수	가구 수 비중(%)	사전 조사	본조사
전국	15,662,083	100.0	100	1,000
서울특별시	3,577,497	22.9	23	229
부산광역시	1,217,765	7.8	8	78
대구광역시	817,159	5.3	6	53
광주광역시	518,742	3.3	6	33
인천광역시	901,704	5.8	3	58
대전광역시	536,297	3.4	3	34
울산광역시	312,478	1.9	1	19
경기도	3,807,859	24.4	25	244
강원도	416,388	2.6	2	26
충청북도	369,921	2.3	2	23
충청남도	507,261	3.2	3	43
전라북도	540,621	3.4	3	34
전라남도	365,742	2.3	2	23
경상북도	801,271	5.1	6	51
경상남도	971,378	6.3	7	63

해 전문가들의 자문과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2015년 12월 16일 표적집단토론회를 개최하였다.

7) 추정모형

(1) 확률효용모형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건립사업으로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 Hanemann(1984)의 확률효용모형을 활용하였다. Hanemann이 제시한 확률효용모형은 고전학파의 예산제약하의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이론에 근거하고 있어 이론적 정지성을 나타내는데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응답자가 자신의 효용함수를 정확하게 알고, 주어진 화폐 소득과 개인의 특성들에 근거하여 공공재의 수준 변화에 대해 느끼는 효용은 간접효용함수($v(j, y; s)$, y : 소득, s : 개인의 관찰 가능한 특성들)로 표현된다. 그러나 연구자에게는 응답자가 공공재 공급수준의 변화를 선택 또는 거부하는데 있어 관찰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효용함수는 다음 식 (1)과 같이 확률적 요소를 갖게 된다.

$$u(j, y; s) = v(j, y; s) + \epsilon_j, \quad j = 0, 1 \quad (1)$$

응답자가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A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응답하는 경우, 효용함수는 식(1-1)과 같다.

$$u(1, y - A; s) \geq u(0, y; s) \quad (1-1)$$

이는 사업시행 이전에 누렸던 효용보다 소득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으로 얻는 효용이 더 커짐을 의미한다. 이는 다시 $v(1, y - A; s) + \epsilon_1 \geq v(0, y; s) + \epsilon_0$ 로 나타낼 수 있고, 식 (2)와 같은 효용격차함수로 변형이 가능하다.

$$\Delta v = v(1, y - A; s) - v(0, y; s) \geq \epsilon_0 - \epsilon_1 = \eta \quad (2)$$

여기서 1과 0은 각각 건설 후와 건설 전의 상태를 나타내며, 이 때 η 는 $\epsilon_0 - \epsilon_1$ 으로 효용격차의 분포를 정형화하기 위한 확률변수(stochastic variable)가 된다. 각 응답자는 사업시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간접효용의 증가분(Δv)이 양(+)이면 “예”라고 답하는데, 이는 제시금액의 지불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개인의 효용증가를 의미하므로 응답자가 “예”라고 응답할 확률은 다음 식(3)과 같이 나타난다.

$$\Pr(Yes) = \Pr(\Delta v \geq \eta) = F_\eta(\Delta v) \quad (3)$$

여기서 $F_\eta(\cdot)$ 는 확률변수 η 의 누적분포함수이다. 응답자가 실제로 지불의사질문에 대해 “예”라고 응답하였다면 확률변수인 WTP, 즉 C 에 대하여 $\Pr(Yes) = \Pr(A \leq C) = 1 - G_C(A)$ 임을 의미하므로 η 의 누적분포함수는 다음 식(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G_C(\cdot)$ 는 확률변수 C 의 누적분포함수이며, A 는 제시된 금액(bid price)이다. Hanemann에 의하면 이 같은 결과는 확률효용이론(Random Utility Theory)의 차원에서 효용극대화 응답으로 해석될 수 있다.

$$F_\eta(\Delta v) = 1 - G_C(A) \quad (4)$$

(2) WTP 추정모형

본 조사에서는 앞서 구체적으로 기술했듯이 이중양분선택형 질문법을 활용하여 WTP를 추정한다. 양분선택형 질문은 응답자에게 연구대상으로부터 기대되는 편익의 변화를 위한 제시금액의 지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묻는다. 이때 효용극대화문제에 직면한 각 응답자 $i = 1, \dots, N$ 는 제시금액(A_i)을 지불할 지 여부에 대해 “예” 혹은 “아니오”로 응답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식(5)와 같다.

$$I^Y = 1 \text{ (i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예' 일 경우)} \quad (5)$$

$$I^N = 1 \text{ (i번째 응답자가 응답이 '아니오' 일 경우)}$$

위 식의 1(.)는 괄호 안의 내용이 참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지는 지시함수(indicator function)이다.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응답자 N 가구의 표본을 가정할 경우, i 번째 응답자의 응답 결과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로그-우도함수를 구성할 수 있다.

$$\ln L = \sum_{i=1}^N \{ I_i^Y \ln [1 - G_C(A_i)] + I_i^N \ln G_C(A_i) \} \quad (6)$$

식(6)의 $G_C(\cdot)$ 를 선행연구들의 관례에 따라 로지스틱분포를 가정하면 $G_C(A) = [1 + \exp(a - b \ln A)]^{-1}$ 로 정형화할 수 있다. 그리고 WTP 중앙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WTP = \exp\left(\frac{a}{b}\right) \quad (7)$$

이때 최종적인 WTP는 추정된 median WTP에 다시 (1-지불거부율), 즉 ((전체응답자수-지불거부 응답자수)/전체응

Table 6.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특성 분류		표본 수(명)	비율(%)
성별	남성	499	49.9
	여성	501	50.1
연령대	20대	61	6.1
	30대	224	22.4
	40대	306	30.6
	50대	319	31.9
	60대 이상	90	9.0
교육수준	중졸 이하	54	5.4
	고졸	318	31.8
	전문대 졸	173	17.3
	대학교 졸	443	44.3
직업구분	대학원 재학 이상	12	1.2
	전문직	129	12.9
	관리직	44	4.4
	사무직	331	33.1
	판매직	95	9.5
	서비스직	75	7.5
	생산직	89	8.9
	농어민	36	3.6
월평균가구소득 (세후소득)	미취업	201	20.1
	100만원 미만	6	0.6
	100~199만원	57	5.7
	200~299만원	99	9.9
	300~399만원	206	20.6
	400~499만원	250	25.0
	500~599만원	223	22.3
	600~699만원	82	8.2
	700~799만원	46	4.6
	800만원 이상	31	3.1

답자수)를 곱해 산정한다.

3. 설문조사 자료 분석

1) 응답자 특성

표 6은 설문조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50대와 40대의 비중이 높고, 대졸, 사무직, 월평균 300~599만원 소득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 주요 조사결과의 요약

최근 3년간 비엔날레 방문 경험에 대하여 응답자의 11.3%만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비엔날레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은 주변 관광지와 연계성(34.5%)이었으며, 이어서 전시 주제(31.9%)라는 응답이 제시되었다. 최근 3년간 비엔날레 방문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32.7%는 집에서 최근 방문한 비엔날레까지 도달하기 위해 1~2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엔날레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91%는 비엔날레에 재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비엔날레를 방문한 경험이 없는 주된 이유는 관심 없음(43.5%), 시간적 여유가 없음(24.0%), 인근에서 비엔날레가 개최되지 않음(20.2%) 등으로 나타났

Table 7. Responses to Proposed Values of Respondents

제시 금액 (원)	제시 인원	예-예		예-아니오		아니오-예		아니오-아니오		자불의사없음	
		빈도수 (가구)	비율 (%)	빈도수 (가구)	비율 (%)	빈도수 (가구)	비율 (%)	빈도수 (가구)	비율 (%)	빈도수 (가구)	비율 (%)
1,000	200	32	3.2	29	2.9	24	2.4	115	11.5	115	11.5
2,000	200	9	0.9	15	1.5	37	3.7	139	13.9	132	13.2
3,000	200	4	0.4	11	1.1	27	2.7	158	15.8	149	14.9
4,000	200	3	0.3	5	0.5	15	1.5	177	17.7	162	16.2
5,000	200	1	0.1	5	0.5	12	1.2	182	18.2	163	16.3
계		49	4.9	65	6.5	115	11.5	771	77.1	721	72.1

Table 8. Definition of Variables and Sample Statistics

변수	변수의 내용	응답자 수	평균	표준편차
응답자 나이	응답자의 연령	279	44.48	9.30
중외공원에 방문하기 위해 이동에 소요된 시간	1 = 30분 이내 2 = 30분~1시간 미만 3 = 1~2시간 미만 4 = 2~3시간 미만 5 = 3시간 이상	73	3.42	1.22
교육수준	1 = 중졸 이하 2 = 고졸 3 = 전문대 재학 4 = 전문대 졸 5 = 대학교 재학 6 = 대학교 졸 7 = 대학원 재학 이상	279	4.62	1.78
소득수준	월평균 가구 세후 소득 1 = 100만원 미만 2 = 100~199만원 3 = 200~299만원 4 = 300~399만원 5 = 400~499만원 6 = 500~599만원 7 = 600~699만원 8 = 700~799만원 9 = 800만원 이상	279	5.23	1.63

다.

한편, 설문응답자의 84.5%는 중외공원의 위치와 현황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중외공원의 위치와 현황을 알고 있다고 한 응답자 155명 중 최근 3년간 중외공원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5.5%인 55명에 불과했다. 이때, 중외공원을 방문한 주요 목적은 광주 비엔날레 방문(69.1%)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도심 내 공원 이용 목적으로 중외공원을 방문했다(29.1%)는 응답이 많았다.

중외공원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67.3%는 중외공원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38.3%에 달했다. 다만, 응답자의 53.8%는 중외공원이 다양한 문화시설을 확보해야 함을 개선사항으로 지적했다.

한편, 설문응답자들의 79.2%는 비엔날레상징 국제타운 조성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르고 있다는 응답자 역시 16.3%에 달했

Table 9. Estimation of WTP with Covariance

모 수	추정계수	표준편차	Z-통계량	p> Z
상수항	6.234335	3.161161	1.97	0.049*
성별	-.0847811	.2930853	-0.29	0.772
나이	2.00932	.7551592	2.66	0.008**
가구원 수	.0337606	.485042	0.07	0.945
교육수준	.4689293	.34586	1.36	0.175
가구 소득	-.8453226	.4646908	-1.82	0.069
제시금액	-1.769028	.2558569	-6.91	0.000**

주: * p<.05, ** p<.01

Table 10. Estimation of WTP without Covariance

모 수	추정계수	표준편차	Z-통계량	p> Z
상수항	11.97491	1.846784	-6.48	0.000**
제시금액	-1.616954	.242485	-6.67	0.000**

주: * p<.05, ** p<.01

다. 이어서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으로 '관심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4.9%로 가장 높았으며, '약간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5.3%, '필요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3.7%로 뒤를 이었다.

4. 편익추정 결과

1) 제시금액에 대한 응답 반응 분포

본 조사의 최종적인 응답 자료는 제시금액에 대하여 '예'라고 응답한 경우와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한편 제시금액에 대한 '예' 응답 비율은 표 7에 제시되었듯이 제시금액이 증가할수록 응답자들의 지불의사가 일관성 있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응답의 분포는 차후의 분석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한편, 응답자의 72.1%는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제시금액에 대하여 지불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2) 제시금액 문항 응답의 타당성 검증

일반적으로 조건부 가치추정법 연구에서는 WTP 모형 내에서 사회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공변량을 포함하여 추정함으로써 모형의 이론적 타당성과 내적 일관성을 검증한다.

공변량을 포함할 경우, $G_c(A) = [1 + \exp(a - bA)]^{-1}$ 에서 a 는 $a + x_i'\beta$ 로 대체된다. 여기서 x_i 는 응답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하는 공변량 벡터이고, β 는 추정해야 할 모수(parameter)들로 이루어진 벡터이다. 표 8은 공변량에 사용된 지불거부자를 제외한 279가구에 대한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표본통계량이다.

표 9는 공변량을 포함한 WTP 모형의 추정결과를 정리한 내용이다. 분석결과 나이가 많은 응답자일수록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건립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을 지불할 의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제시금액이 높을수록,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지불의사는 낮게 나타났다. 반면, 성별, 교육수준, 가구원 수, 자녀 수는 모형에 일관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어 표 10은 공변량을 포함하지 않는 WTP 모형의 추정결과로 제시금액만이 변수로 사용되었다.

3) 실증분석 결과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건립사업으로 인한 편익추정결과 는 표 11의 내용과 같다. 추정된 가구당 연간 WTP 추정치에 설문 시점의 전국 가구 수를 곱해주면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건립사업의 연간 총편익을 산출할 수 있다. 가구 수는 통계청 홈페이지의 통계데이터베이스인 KOSIS의 2015년

Table 11. Total Benefits of the Biennale Symbolic International Town Construction Project

WTP(원/가구당)		가구수(가구)	총편익(백만원)
2015년 12월말 기준	2014년 12월말 기준		
459.1	455.9	18,705,005	8,527.5

Table 12. Present Value of Total Benefits of the Biennale Symbolic International Town Construction Project

						(단위: 백만원)
연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총편익
편익	8,082.97	7,661.58	7,262.16	6,883.57	6,524.70	36,414.98

추계치를 활용하였다. 이렇게 추정된 연간 총편익은 약 8,527.5백만원으로 계산되었다.

한편 본 조사는 전술한 바와 같이 분석 시점을 2015년 말, 지불기간은 5년, 할인율은 5.5%를 가정하였다. 따라서 본 사업의 5년간 총 편익의 현재가치는 약 36,414.98백만원으로 산출되었다.

5. Hanemann, W.M. 1984. Welfare evaluations in contingent valuation experiments with discrete response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66: pp.332-341

IV. 결론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 사업’의 공공편익을 추정하였다. 편익 추정에 있어서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시장 편익을 조건부가 치추정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 이중양분선택형 설문제에 근거한 설문조사자료를 토대로 지불용의금액을 추정하였다. 설문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별 인구비중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여 진행하였다. 설문응답자들은 대체로 사업에 대해 잘 모르고, 지불의사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분석결과는 일관성과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분석결과 사업시행 후 5년간 발생하는 총편익은 약 364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경우 본 연구와 같이 엄격한 경제성 분석 과정을 통해 그 사업성이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첫째, 연구의 분량 및 공공사업의 기밀성을 고려하여 전체 경제성 분석에서 편익 추정 부분만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사업타당성 여부는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분석에 있어 할인율을 당시 사회적 할인율인 5.5%로 적용하였으나 현재의 사회적 할인율이 4.5%임을 감안하여 추정 결과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용문헌 References

1. 광주광역시. 2013.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중외종합예술공원) 조성 기본계획.
2. 김홍배. 2006. 정책평가방법: 비용편익분석론. 서울: 기문당.
3. 문화체육관광부. 201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2013~2023).
4.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16.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동종업종과 이종업종의 군집이 편의점 매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울시를 중심으로*

Impact of The Clustering between Homogeneous and Heterogeneous on Convenience Stores Sales

이가문** · 성은영*** · 김경수**** · 최창규*****

Lee, Jia Wen · Seong, Eun Yeong · Kim, Kyung Soo · Choi, Chang Gyu

Abstract

Industrial clustering have been studied as a major issue in retail locations and have been divided into two main categories: a cluster of homogeneous industries and a cluster of heterogeneous indust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impact of the cluster effect on convenience store sales by analyzing how it affects convenience store sales when clustered between the same industry and the same industry.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 convenience stores of homogeneous industries clustering were significant in Model 1 and not significant in Model 2345 which the different control variables and heterogeneous industries had been controlled. Supermarkets may seem to have negative effects on convenience store sales. In the case of clusters of heterogeneous industries, the food and beverage industries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convenience store sales, while academies were foun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convenience store sales. It means that supermarkets are competitive with convenience stores, while food and beverage industries are complementary to convenience stores. Also, the clustering effect of convenience stores is not exist locally.

키워드 군집효과, 동종업종, 이종업종, 편의점, 매출, 회귀분석

Keywords Clustering effect, Homogeneous, Heterogeneous, Convenience Store, Sale, Regression Analysis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소매업 창업 성공 여부의 주요한 요인인 매출은 점포 주변에 입지한 경쟁점에 큰 영향을 받는다. 경쟁은 동일한 재화를 판매하는 동종업종과 다른 재화를 판매하는 이종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업종에 따라 부정적일수도 긍정적일수도 있다.

동종업종의 공간적 군집에 대한 최초의 이론은 Hotelling (1929)에 의해 제안된 최소차별화원리 (Principle of

minimum differentiation)이다. 그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두 점포가 공간경쟁을 하고, 결국 두 기업이 서로의 배후지가 극대화되는 시장의 중심에 집적하여 입지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종업종의 공간적 집적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공급자 중심의 Hotelling(1929)의 이론적 주장은 실증적 뒷받침이 따르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편의점은 점포별로 취급하는 제품이 거의 비슷하며 가격도 차이가 적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여러 점포를 방문해 제품과 가격을 비교해야 하는 이유도 없다. 소비자는 최소의 노력을 들여 자신에게서 가장 가까운 점포를 이용하는 것이 이득이다 (Handy, 1992). 소비자의 행태에 기반하여 해석하면 편의점

* 본 연구는 주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기반으로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Product Manager,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First Author: ljw9238@sina.com)

*** Post-doc., Department of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Hanyang University (bocksil@nate.com)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Hanyang University (reits2000@hanmail.net)

***** Professor, Department of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Hanyang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campo95@naver.com)

주 입장에서 경쟁을 증가시키는 집적을 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의 집적은 현실에서 매우 쉽게 발견된다. 편의점 자체가 소비자를 끌어오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타업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를 유인하는 업종 인근에 입지하면 편의점은 그 소비자를 공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편의점의 집적이 매출에 긍정적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편의점의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종업종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편의점의 경쟁이 매출에 긍정적인지 실증분석을 통해 호텔링의 최소차별화 가설이 현실 적용 가능한 것인지 확인가능하다. 최소차별화 원리에 따르면 편의점의 집적은 평형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의 추가적인 이득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호텔링(1929)의 최소차별화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이종업종과의 관계를 분석 함으로써 편의점 집적의 원리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SKT-Geovision이 제공하는 매출 정보를 활용하여 서울시 전체 소단위¹⁾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소단위는 집계구에 비해 평균적으로 작기 때문에, 보다 상세히 분석 가능하다 (표1 참조). 총 18,419개 소단위 중에서 편의점이 입지한 2,871개 소단위의 2012년 9월 매출 정보를 이용 하였다.

II. 업종간의 군집효과에 대한 이론 및 선행 연구 고찰

1. 동종·이종간의 군집에 관한 논의

동종업종의 공간적 집적을 설명하는 최초의 제안은 호텔링(1979)의 최소차별화원리이다. 선형의 시장에서 2개의 동종업종의 점포는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 경쟁하면서 가운데로 접근하며 최종적으로 시장균형이라는 현상이 이루어지며, 시장의 중심에서 군집을 형성하게 된다. 최소차별화원리는 상업입지에 주요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지만, 점포가 두개 이상일 때 설명이 어려우며, 동종업종의 군집에 대해서만 해석

할 수 있다는 점이 한계를 가진다.

이후 Eaton and Lipsey (1975)는 점포의 추가적인 진입을 고려하여 지역군집법칙 (Principle of Local Clustering)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새로운 점포가 시장에 추가 입지 할 때, 그 점포는 기존의 점포에 인접하여 위치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하였다.

소비자는 쇼핑할 때 항상 가까운 점포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점포를 방문하고 비교하여 구매하기를 원한다. 상점이 군집된 상권 또는 지역에 방문한 소비자는 한 번의 방문으로 다양한 재화를 동시 구매 (multi purpose shopping) 할 수 있다. 이종업종의 집적은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을 한 번의 이동으로 구매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시간과 비용 절감이라는 이익을 준다 (Huff, 1964; Ghosh, 1986). 일부 실증 연구들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Eaton and Lipsey:1982).

Eaton and Lipsey(1982)는 중심지 이론을 바탕으로 고차위 중심지와 저차위 중심지로 구분하여 소비자가 고차위 재화와 저차위재화를 동시에 구매하는 경향을 규명하였으며, 이러한 쇼핑 패턴으로 인해 저차위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가 고차위 중심지로 이동하여 이종업종의 군집이 일어난다고 설명하였다. O'Kelly(1983)는 한 번의 이동(trip)으로 서로 다른 활동을 결합하고자 한다고 주장하였다. Dudey(1990)는 재화의 종류에 따라 군집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실증하였다. 상품의 질 및 내구성, 가격 등을 비교 선택하여 구매하는 탐색재는 군집하는 경향이 있으며, 점포별 품질의 차별성의 낮은 편의품 판매업은 군집효과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Leszczyc and Timmermans(2001)는 소비자의 쇼핑행동을 대규모 쇼핑센터로의 윈스톱 쇼핑과 전문점 및 편의점으로 멀티쇼핑 두 가지로 구분하여 소비자가 어느 소비패턴에 대한 선호가 더 강한지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소비자는 전문점 및 편의점에서의 멀티쇼핑 행동을 더 선호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Arentze et al. (2005)는 쇼핑센터를 대상으로 점포특징이 소비자의 쇼핑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타업종의 점포와 점포의 규모가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이종업종의 집적에 관한 연구에서는 각 업종의 군집에 대한 입지선호를 확인하는

Table 1. 단위별 면적비교 (단위 : m²) Area Comparison by Unit

Category	N	Min.	Max.	Mean
동 Dong unit	467	10,726	18,122,932	1,295,753
집계구 census output area	16,092	464	10,119,370	37,691
소단위 Small Unit	18,492	577	6,643,397	328

동종업종과 이종업종의 군집이 편의점 매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편, 집적이 점포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이 주로 이루어졌다.

편의점이 동종업종간 혹은 이종업종과 집적하는 것에 대한 연구도 일부 진행되었다. 임재빈·정창무(2011)는 강북과 강남구를 대상으로 소매업간의 입지를 응집지수로 분석하였으며, 결과적으로는 편의점은 다른 업종과 강한 입지 상관성이 있다고 추정하였다. 유민지(2015)는 소매업 집적효과 존재여부를 편의점과 제과·제빵점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편의점과 제과제빵점은 집적할수록 매출이 감소하고, 이종업종인 음식점, 숙박업과 집적할수록 매출액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임영재(2018)는 편의점이 집적할수록 매출이 상승하였으나, 유사한 재화를 판매하는 슈퍼마켓의 집적은 편의점 매출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이정란·최막중(2018)은 동종과 이종의 도·소매 업종구성에

따른 상권 변화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01개 상권을 분석하였다. 동종업종과 이종업종의 점포 집적이론을 토대로 집적지수(RDI)를 추정한 결과, 동종업종의 지수가 작은 지역은 종로, 중구 등 도심지역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업종 다양성이 높은 이종업종인 강남, 홍대, 신촌 등의 지역에서는 집적지수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Teller (2016)는 277개 점포의 관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경합도, 집적효과, 점포실적 간의 세 가지 관계의 상관성을 확인하였다. 경합도는 점포집적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집적은 점포실적에 양(+)의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하였다. Sevtsuk (2014)은 전자제품 판매점, 의류상점, 음식, 음료점 등의 입지특성을 분석하였고 해당 상점이 입지하는 선호가 있는지를 실증하였다. 결과적으로는 해당 점포의 입지선호는 다른 점포의 입지선정과 큰

Table 2. Deriving Variables Through Prior Studies

Category			Lee et al (2010)	Hwang (2014)	Kim et al (2015)	Yoo (2015)	Im (2018)	Using Variables
Sales	Sales		●	●	●	●	●	●
	Profit		●	●				
Clustering factors	Homogeneous	Convenience store	●	●	●	●	●	●
		Supermarket	●	●	●	●	●	●
	Heterogeneous	Restaurant				●	●	●
		Service industries				●	●	●
		Public health center				●		
		Hotel industries				●		
		Education sector				●		
		Nearby services					●	●
		Academy				●	●	●
		Floating population	●	●	●		●	
Population factors	Gender			●				
	Age			●				
	Permanent resident population		●	●	●	●	●	●
	Employed population				●	●	●	●
Store factors	Store area		●	●				
	Number of frontage		●	●				
	Street frontage length		●	●				
	Street-facing road types		●	●				
Economic factors	The public land price				●	●	●	●
	6 districts in the center of city					●	●	●
Buildings	Floor area ratio				●	●		●
	The coverage rate				●	●		●
Mixed land use factors	Mixed residential and commercial uses index				●	●	●	
	Mixed residential and office uses index				●	●	●	
	Mixed land use index				●	●	●	●
Accessibility characteristics	The distance to the subway station				●	●	●	●
	The distance to the bus stop				●	●	●	●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소매업종별 입지에 대한 선호가 다르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2. 편의점 매출에 관한 연구

편의점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특성, 경쟁점포 수 등이다. 이임동 외 (2010)는 유동인구가 편의점 매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익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주장하였다. 배후인구는 많을수록 편의점의 매출과 이익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여, 개별상권의 특성에 따라 유동인구와 배후인구의 영향이 차별적임을 주장하였다. 최유나·정희철 (2012)는 수도권권의 서부지역을 대상으로 편의점은 수요가 많은 위치에 입지함과 동시에 가시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매출상승에 효과적인 요인임을 밝혀냈다. 황규성 (2014)는 편의점의 매출액, 이익을 종속변수로 부산광역시의 내 신규 출점한 52개 점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배후인구가 많은 곳에 편의점 매출과 수익이 높음을 확인하였으며, 경쟁점포 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수현 외 (2015)는 소매업을 편의점, 화장품판매점, 커피전문점 등 3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경쟁점포 수는 편의점 매출에 긍정적(+) 영향이 있다는 결과가 있음을 실증하였지만, 인구특성에서 상주인구와 고용인구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편의점의 입지에 대한 공간적인 특성에 분석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 진행되었다. 하지만, 업종간의 군집효과는 입지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선행연구와 관련 이론을 통해 도출된 본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편의점 브랜드 중 특정 브랜드에 국한되어 분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한 원인은 매출 데이터 구득의 한계로 이해된다. 특정 브랜드의 점포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를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둘째, 편의점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에 관해 동종업종과 이종업종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편의점의 집적의 원리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먼거리의 소비자를 유인하는 힘이 약한 편의점의 입지 전략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III. 변수설정 및 데이터 구축

본 연구에서 분석된 SKT-Geovision은 개인정보의 유출을 우려하여 개별 점포의 면적과 위치 등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으며, 소단위로 매출을 합산하여 제공한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편의점 매출액이다 (그림1 참조). 매출액은 2012년 9월 편의점의 점포당 현대카드 승인금액이다. 2012년 현대카드

시장점유율은 13.3%이다. 독립변수는 동종업종, 이종업종을 중점으로 살펴보고, 입지요인, 인구요인, 점포요인, 경제요인, 토지이용혼합특성, 접근특성, 비용요인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이임동 외, 2010; 황규성, 2014; 김수현 외, 2015; 유민지, 2015; 임영재, 2018 등).

동종업종과 이종업종의 점포수는 군집효과가 매출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주요한 변수이다. 분석을 통하여 편의점에 대한 경쟁점포와 보완재를 확인할 수 있으며 동종업종과 이종업종간의 군집효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통제변수의 경우는 크게 인구특성, 건축물특성, 토지이용혼합특성, 접근성, 경제특성이다. 수요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상주인구, 고용인구의 인구특성을 고려하였다. 공간의 밀도를 측정하기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고려하였다. 토지이용혼합특성은 편의점이 입지한 소단위의 토지이용이 얼마나 복합적인지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Im and Choi (2019)에 따르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혼합적 특성을 정확히 고려하기 위해서는 LUM과 LUM-squared변수를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LUM과 LUM-squared변수를 동시에 고려하였다. 접근성은 소단위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까지의 거리로 측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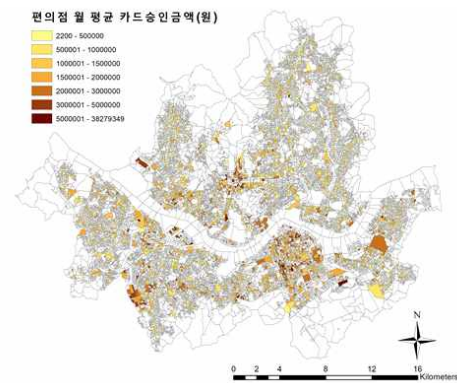


Figure 1 월 점포당 카드승인금액 분포

IV. 군집효과가 편의점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기초통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이며, 2,871개 소단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월 점포당 카드승인금액이며, 주요변수는 동종업종 및 이종업종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

동종업종과 이종업종의 군집이 편의점 매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울시를 중심으로-

Table 3. Description of variables

구분 Category	변수 Variable	변수설명 variable declaration	자료출처 Data source
종속변수 Dependent variable	편의점당 월 평균 카드승인금액 Average monthly credit card approval amount per shop	ln(소단위 가맹점당 월 평균 카드승인금액)(원) ln(average monthly credit card approval amount per shop) (won)	
동종업종 밀도 Homogeneous	편의점밀도 Density of convenience store	가맹점수/소단위면적(shop/ha) Number of shop/unit area (shop/ha)	SKT Geovision (2012)
	슈퍼마켓밀도 Density of supermarket		
이종업종 밀도 Heterogeneous	음식업밀도 Density of restaurants	가맹점수/소단위면적(shop/ha) Number of shop/unit area (shop/ha)	
	음료 및 주류업밀도 Density of beverage and drinks		
	근린서비스업밀도 Density of services		
	학원업밀도 Density of academy		
인구특성 Population's characteristics	고용인구밀도 Density of employed population	소단위 별 고용인구밀도(person/ha) Employment population density (person/ha)	Basic survey data for businesses (2012)
	상주인구밀도 Density of residents	소단위 별 상주인구밀도(/ha) Occupancy density (/ha) by subunit	Population census data(2011)
토지이용특성 land use characteristics	건폐율 Building coverage ratio	소단위 내 건폐율 (%) The coverage rate in small units(%)	Tax ledger in Seoul (2012)
	용적률 FAR	소단위 용적률 (%) FAR(%)	
	LUM4	소단위 내 4가지(거주, 상업, 업무, 기타) 용도에 대한 토지이용 복합도(LUM 공식 사용) Land-use mixed index (using the LUM formula) for the four uses within a small unit (resident, commercial, work, other)	
	LUM4-squared	LUM4-squared	
접근특성 Accessibility characteristics	버스정류장까지 거리 Distance to the nearest bus stop	소단위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m) Distance from the center of the small unit to the nearest bus stop	SKT Geovision (2012)
	지하철역까지 거리 Distance to the nearest subway station	소단위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의 거리(m) Distance from the center of the small unit to the nearest subway station	New address business DB (2012)
경제특성 Economic characteristics	지가 land price	ln(소단위 별 평균 공시지가(원)) ln(average land price by small unit(won))	Individual land price data (2012)
	도심 6개구 6 districts of city's central business district	1=yes, 0=no	

에서 선정된 서울시 소단위 내 동종업종, 이종업종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종업종 및 이종업종이 구성된 각 업종에 대한 기초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4 참조).

종속변수인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은 1,347,381원으로 나타났다. 최댓값이 38,279,349원이고 최솟값이 2,200원으로 점포당 매출의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의 공간적 분포는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강남, 여의도, 중구, 서초 등 중심상업지역이 높았다. 평균 편의점 밀도는 0.711이며, 슈퍼마켓 (0.204) 보다 약 3배 이상 높았다. 이종업종 같은 경우는 음식점 밀도가 3.528, 음료업밀도 1.298, 근린상업밀도 0.702, 학원밀도 0.227 순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의 밀도가 다른 업종보다 높았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184.80%, 35.36%이고, lum은 0.671, lum-squared는 0.500으로 나타났다. 또한, 접근성 변수에서 소단위에 있는 편의점의 중심에서 지하철역, 버스정류장까지 평균 거리는 359.86m와 63.73m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 간 상관관계 및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문제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계수는 0에서 ± 1 까지의 값으로 표현되며, 절대 값은 관계의 강도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상관

분석에서 상관계수가 ± 0.7 이상인 경우에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업종간의 군집효과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 분석

동종업종과 이종업종의 집적이 편의점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독립변수를 단계적으로 고려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Model.1은 동종업종의 집적을 고려하였고, Model.2는 인구특성을 추가하였고, Model.3은 토지이용특성, 경제특성, 접근성 특성을 추가하였다. Model.4는 동종업종과 이종업종을 고려하였고, Model.5는 모든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동종업종만 있는 경우 Model1을 보면 편의점밀도와 슈퍼마켓밀도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편의점밀도가 높을수록 매출이 상승하였고, 슈퍼마켓밀도가 높을수록 편의점 매출은 하락하였다. 슈퍼마켓과 편의점이 서로 경합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설명하였다.

Table 4. Description statistics

Category	variable	Min.	Max.	Mean	Std. Dev
Dependent variable	Average monthly credit card approval amount per convenience store(won/shop)	2,200	38,279,349	1,347,381	1,353,958
Homogeneous	Density of convenience store(shop/ha)	0.009	5.149	0.711	0.531
	Density of supermarket(shop/ha)	0.000	3.465	0.204	0.360
Heterogeneous	Density of food(shop/ha)	0.000	33.819	3.528	3.836
	Density of beverage and drinks(shop/ha)	0.000	20.624	1.298	2.045
	Density of services(shop/ha)	0.000	9.700	0.702	0.867
	Density of academy(shop/ha)	0.000	9.021	0.227	0.640
Population characteristics	Residential population density(shop/ha)	0.000	2,033.400	264.819	224.184
	Employee density(shop/ha)	0.000	6,337.747	256.824	408.787
Land use characteristics	FAR(%)	2.600	1,331.600	184.804	132.184
	Building coverage rate(%)	1.500	77.900	35.362	9.841
	LUM4	0.001	0.996	0.671	0.224
	LUM4 ²	0.000	0.992	0.500	0.258
Accessibility characteristics	Distance to the nearest subway station(m)	14.04	3,512.27	499.77	359.86
	Distance to the nearest bus stop(m)	1.76	540.65	107.44	63.73
Economic characteristics	Land price(won/m ²)	333,667	42,949,831	4,197,631	3,662,569
	6 districts of CBD	0.000	1.000	0.332	0.471

동종업종과 이종업종의 군집이 편의점 매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울시를 중심으로-

Model.2는 Model.1에 인구특성을 추가하였다. 편의점 밀도는 여전히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슈퍼마켓은 편의점과 경쟁관계가 유지되었다. 상주인구가 많을수록 편의점 매출은 하락하였으며, 종사자수는 편의점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Model3은 Model.2에 토지이용특성, 접근성특성, 경제특성을 추가하였다. 슈퍼마켓의 밀도가 높을수록 편의점의 매출이 하락했다. 편의점의 밀도는 매출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물리적 환경을 제어했을 때 편의점밀도는 매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동종업종과 이종업종을 동시에 고려한 Model.4의 결과도 동일하다. 편의점의 밀도는 매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음식점의 밀도가 높을수록 편의점의 매출은 상승하였으나, 학원의 밀도는 편의점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모든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Model.5에서도 편의점 밀도의 영향을 동일했다. 편의점의 밀도는 매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슈퍼마켓의 집적은 편의점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종업종의 경우 음식점과 음료판매업의 집적은 편의점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학원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종업종 중 음식점과 음료업이 군집할수록 편의점 매출액이 올라가므로 음식점, 음료업은 편의점과 보완재라고 추정될 수 있다.

토지이용혼합도 같은 경우는, 비선형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곱으로 계산하여 두 가지로 변수를 사용하였다. 인구특성에 대한 결과, 거주인구밀도가 편의점 매출액과 음(-)의 결과를 나타냈으며, 종사자밀도는 큰 양(+)의 영향이 나타났다. 또한, 용적률(+), 건폐율(-)은 편의점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에, 건물층수 가

Table 5. Analysis of Cluster Effect on Sales among Industries

Category		Comparison model by industry			Total variable model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Coef.	Coef.	Coef.	Coef.	Coef.	VIF
	Constant	13.824	13.838	13.831	13.757	13.811	
Homogeneous shop density	Density of convenience store	0.108***	0.073***	0.010	0.031	-0.037	1.462
	Density of supermarket	-0.181***	-0.128***	-0.073**	-0.199***	-0.082**	1.071
Heterogeneous shop density	Density of food				0.038***	0.016***	2.505
	Density of beverage and drinks				0.011	0.024***	2.126
	Density of nearby services				-0.016	0.007	1.159
	Density of academy				-0.059***	-0.064***	1.092
Population's characteristics	Residential population density		-0.000***	-0.000***		-0.000**	2.188
	Employee density		0.000***	0.000***		0.000***	2.278
land use characteristics	Floor area ratio			0.001***		0.001***	2.394
	The coverage rate			-0.004***		-0.006***	1.308
	LUM4			-0.519**		-0.632**	24.835
	LUM4 ²			0.518**		0.572***	27.815
Accessibility characteristics	Distance to subway station			-0.000***		-0.000	1.116
	Distance to the bus stop			0.001***		0.001***	1.086
Economic characteristics	Published land price			0.000***		0.000***	2.120
	6 districts of CBD			0.128***		0.142***	1.294
F-value		19.720	85.459	49.715	30.909	41.728	
R ²		0.014	0.107	0.173	0.061	0.190	
R ² -adjusted		0.0130	0.105	0.169	0.059	0.185	

***p-value<0.01, **p-value<0.05, *p-value<0.1

높고, 도로가 넓은 지역에 입지하면 편의점의 매출액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이용혼합도의 경우, Lum은 음(-), Lum²은 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편의점 매출액에 토지이용은 비선형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된다.

접근성에서는 버스정류장과의 거리가 멀수록 편의점 매출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유민지, 2015; 임영재, 2018; 김수현 외, 201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경제특성에 있어서 공시지가, 상위 6개구 변수는 매출액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V. 결론

본 연구는 업종간의 군집효과가 편의점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종업종 및 이종업종을 주요 변수로 인구특성, 건축물특성, 토지이용혼합특성, 접근성, 경제특성 등을 통제변수로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편의점의 집적은 매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동종업종의 밀도만 고려하였을 때 편의점이 집적할수록 매출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물리적특성 및 이종업종의 밀도를 고려하면 그 효과는 사라졌다. 편의점의 집적이 추가적인 이득을 발생하지 않는 것은 호텔링이 제안한 최소차별화 원리도 해석 가능하다. 호텔링의 최소차별화원리에 따르면 시장의 중앙에 집적하여 입지한 점포는 서로의 추가적인 이득이 없는 평형 상태에 도달하여 공간적인 균형을 이루게 된다고 하였다. 이종업종의 밀도를 추가하여도 편의점의 집적이 매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향은 유지되었다.

이종업종 중 음식업과 음료업이 집적할수록 편의점의 매출은 상승하였다. 소비자가 원할 때 손쉽게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편의점의 특성 상, 수요가 많은 곳에 입지하여 그 소비자를 공유하는 것이 매출에 유리한 전략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종사자수가 많고, 지가가 높고, 상위 6개구에 입지할수록 편의점 매출은 상승하였다. 결국, 편의점은 음식점과 음료업종이 밀집한 상업 업무기능이 발달한 중심지에 입지하는 것이 매출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편의점 창업을 원하는 참여자에게 입지전략의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소단위로 제공되는 매출데이터의 한계로,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포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주1. 소단위 : 평균적으로 집계구보다 더 작은 단위로, SK Geovision에 의해 제공된 공간단위

인용문헌

References

1. 김수현 · 김태현 · 임하나 · 최창규, 2015. "소매업의 매출액을 결정하는 보행량 및 건조 환경 요인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50(3): 299-318.
2. 신우진 · 문소연, 2011.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입지특성이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분석", 「부동산학연구」, 17(2): 111-123.
3. 유민지, 2015. "소매업의 업종 및 지역별 집적과 매출간의 영향관계: 거리제한제도의 정책적 합의",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이경민 · 하승현 · 정경훈 · 정창무, 2014. "이종 소매업종간 집적효과에 따른 점포 군집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9(1): 111-125.
5. 이임동 · 이찬호 · 강상목, 2010. "편의점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입지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부동산학연구」, 16(4): 53-77.
6. 이정란 · 최막중, 2018. "동종과 이종의 도 · 소매 업종구성에 따른 상권 변화의 특성",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0(2): 137-154.
7. 임영재, 2018. "집적경제와 인구지표가 편의점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 임재빈 · 정창무, 2008. "소매업종 분포패턴 및 업종간 입지관계에 관한 비교연구 -강남구와 강북구를 대상으로 -", 「국토계획」, 43(2): 99-110.
9. 최막중 · 신선미, 2001. "보행량이 소매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국토계획」, 36(2): 75-83.
10. 최유나 · 정의철, 2012. "입지요인이 편의점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수도권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도시연구」, 5(1): 81-95.
11. 황규성, 2014. "편의점 입지선정시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학보」, 292-306.
12. Andres Sevtsuk, 2014. "Location and Agglomeration: The Distribution of Retail and Food Businesses in Dense Urban Environments",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1-20.
13. Huff, David L., 1964. "Defining and estimating a trading area", Journal of Marketing, 28: 34-38.
14. Dudev, 1990. "Competition by Choice: The Effect of Consumer Search on Firm Location Decis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80(5): 1092-1104.
15. Eaton, B. C and Lipsey, 1975. "The Principle of Minimum Differentiation Revisited. Some New developments in the Theory of Spatial Competition", Review of economic studies, 42(1): 27-49.
16. Ghosh, A., 1986. "The Value of a Mall and Other

- Insights from a Revised Central Place Theory", *Journal of Retailing*, 62(1) : 79-97.
17. Ghosh, A., 1986. "An Approach to Determining Optimal Locations for New Service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3(11) : 354-362.
 18. Harold Hotelling, 1929. "Stability in Competition", *The Economic Journal*, 39(153): 41-57.
 19. Noboru Sakashita, 2000. "An Economic Analysis of Convenience-store Location", *Urban Studies*, 37(3): 471-479.
 20. O' Kelly, 1983. "Multipurpose Shopping Trips and the Size of Retail Facilitie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3 : 231-239.
 21. PTLP, Leszczyc and H. Timmermans, 2001. "Experimental choice analysis of shopping strategies", *Journal of Retailing*, 77 : 493-509.
 22. TA. Arentze, H Oppewal and HJP. Timmermans, 2005. "A Multipurpose Shopping Trip Model to Assess Retail Agglomeration Effect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42(1) : 109-115.
 23. Teller, C. and Alexander A. and Floh, A., 2015. "The impact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on the performance of a retail agglomeration and its stores",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52: 6-17.
 24. Thrill, J. C., 1985. "Demand in space and Multi-purpose Shopping: A Theoretical Approach", *Geographical Analysis*, 17(2): 114-129
 25. Stephen Brown, 1989. "Retail location theory - the legacy of Harold Hotelling", *Journal of Retailing*, 65(4): 450-470.
 26. Stahl, K., 1987. "Theories of urban business location", *Handbook of Regional and Urban Economics*, 2: 759-820.
 27. S L. McLafferty, A Ghosh, 1986. "Multipurpose Shopping and the Location of Retail Firms", *Geographical Analysis*, 18(3): 216-226.
-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 관광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 분석

- 다지역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여 -

An Analysis of the ripple effect of Demographic Change on the Local Tourism Industry

- Using a Many-regional input output model -

홍인영* · 김홍배**

Hong, In-young · Kim, Hong-bae

Abstract

Korea is facing rapid population changes due to low birthrates and aging population. In 2017, it entered the aged society (more than 14% of the population over aged 65), and in 2026, it is expected to enter the super-aged society (more than 20% of the population over aged 65). Korea's population is expected to peak at 51.92 million in 2026, then drop below 50 million in 2044, and below 40 million in 2066. The total population decreases, while the number of people aged 60 and over continues to increase. Such demographic changes also affect tourism demand. As of 2044, only the population over aged 60 increased the number of travelers and travel expenditures. In 2066 the number of travellers and travel expenditure of all ages decreased. The ripple effect on travel expenditure has been analyzed to continue to decrease over time. As a result, the increase population over aged 60 supports the revitalization of the tourism industry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but the economy slows down over time. Eventually, aging and population decreases will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non-tourism industry as well as the tourism industry.

키워드 인구구조 변화, 고령화, 인구감소, 다지역 투입산출모형, 관광산업, 파급효과

Keywords Demographic changes, aging population, decrease in population, many-regional input and output model, tourism industry, ripple effects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2017년, 이미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 이상)에 진입하였고, 2026년, 초고령사회 또는 후기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진입할 전망이다. 현 상태대로라면 2026년 우리나라 인구는 5,192만 명으로 정점에 다다른 후, 2044년, 5,000만 명 이하 수준(4,987만 명)으로 감소하게 된다. 2066년에 이르러서는

4,000만 명 이하 수준(3,979만 명)까지 감소 될 것으로 예측된다(통계청, 2017).

국제적 상황으로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난다.

<표 1> 세계 각국의 고령화 속도 비교

구분	65세 인구 비중 진입년도			소요연수	
	7% 진입	14% 진입 (고령사회)	20% 진입 (초고령사회)	7% → 14%	14% → 20%
한국	2000	2017	2025	17	8
일본	1970	1994	2006	24	12
미국	1942	2013	2029	71	16
독일	1932	1974	2007	42	33
이탈리아	1927	1988	2009	61	21
프랑스	1864	1990	2019	126	29

자료 : OECD; 통계청; 한국은행(2017)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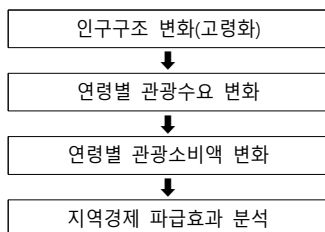
**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고령화에 대한 정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에서 55세 이상을 고령자, 50~54세를 준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다. UN에서는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60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동안 인구구조 변화 및 고령화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관광산업을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정옥영·지계웅, 2016).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관광정책 수립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자료나 연구도 매우 부족하다(박상곤, 2017). 인구고령화와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관한 연구(이진면 외, 2013), 인구고령화와 음식·숙박 소비지출에 관한 연구(정옥영·지계웅, 2016), 연령별 관광소비패턴 변화와 내수파급효과 분석(박문수, 2016) 등의 연구는 수행되었다. 그러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내 관광수요의 변화, 그 결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관련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내국인의 연령별 국내관광 수요와 소비지출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변화된 관광수요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즉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국내 관광수요와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크게 4절로 구성된다. 2절에서는 인구구조 통계와 관광통계를 살펴보고, 3절에서는 관광산업에 대한 최종수요를 도출한 후, 다지역 투입산출모형을 통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4절에서는 결론 및 시사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그림 1) 분석의 framework

II. 인구구조와 관광통계

1. 인구구조 변화

국가통계포털(2017) 장래 인구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6년 5,192만 명으로 정점에 다르다. 이후 인구 감소세를 보이는데 2044년에 최초 5천만 명 이하로 감소하고, 2066년에 이르러 4천만 명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표 2>에 보는 바와 같이 2020년에서 2044년으로 넘어가면서 0~59세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60세 이상의 인구는 증가하게 된다. 또한 2044년에서 2066년으로 넘어갈 때는 전연령 인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인구구조 변화 자체가 단기간 내에 역전시키기 힘든 지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제현정·이희연, 2017).

장래인구추계는 미래의 인구를 변동시키는 출산과 사망, 국제 순이동에 대한 가정에 기초해 작성한 결과이므로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인구추계는 인구변동요인에 대한 특정 가정이 장래에 실현된다면 나타날 결과를 계산한 수치이므로, 실제 실현되는 인구와는 다를 수 있다. 또한 정부 정책 변화(출산, 보건 및 외국인 정책 등), 인구학적 행동의 특성변화가 인구변동요인의 추세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국가통계포털, 2017).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관광 수요 변화, 그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더욱 깊어지는 인구구조 변화 현상이 장래에 가져올 경제적 충격의 크기를 지역경제 파급효과로 분석하고, 그 수준을 현시점과 비교하여 정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국 17개 광역 시·도 지역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통계청에서 2019년에 생산한 2067년까지의 장래인구 추계자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15~2019년도 국민여행조사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국민여행조사 자료는 통계청 승인 국가통계 자료에 해당된다. 동 자료는 각 년도 1월 1일~12월 31일 동안 15세 이상의 인구가 한 해 동안 한 거주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다녀온 여행경험을 토대로 여행경험

를, 여행지출액 등을 산출하였다.

현상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시점에 해당된다.

2. 내국인 국내관광 현황 변화

내국인의 국내관광은 외래관광객의 국내 지출액보다 높고, 방문 목적지도 수도권에 집중된 외래관광객과는 달리 지역으로 더 분산되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에 더 크게 기여 할 수 있다(UNWTO, 2008).

내국인 국내관광 현황분석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국민여행조사(2015~2019)를 활용하였다. 과거 5년간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연령별 여행경험률, 1인 여행지출액을 산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미래의 여행자 수와 총 여행지출액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2020년을 기준년도로 하고 2044년, 2066년을 특정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3. 관광수요 및 관광소비액 분석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2020년 연령별 인구에 연령별 여행경험률을 곱하여 여행자 수를 산출한다. 산출된 여행자 수에 1인 평균 여행지출액을 곱하여 총 여행지출액을 산출한다.

총 여행지출액 산출 식은 다음 식(1)과 같다.

$$TS_t^c = p_t^c \cdot tex_t^c \cdot ts_t^c \quad \dots (식1)$$

TS_t^c : 년도 t 코호트 c 의 총 여행지출액

p_t^c : 년도 t 코호트 c 의 인구수

tex_t^c : 년도 t 코호트 c 의 여행 경험률

ts_t^c : 년도 t 코호트 c 의 1인 평균 여행지출액

<표 2> 연도별 장래인구 추계

(단위 : 명, %)

구 분	2020 (기준년도)	2044 (인구 5천만 명 이하 감소 시점)		2066 (인구 4천만 명 이하 감소 시점)	
	인구	인구	증감률 (2020-2044)	인구	증감률 (2020-2066)
0 - 14세	6,296,838	4,745,085	-24.6%	3,197,592	-49.2%
15 - 19세	2,491,002	1,683,080	-32.4%	1,251,412	-49.8%
20 - 29세	6,971,785	3,374,117	-51.6%	2,903,907	-58.3%
30 - 39세	7,203,550	4,595,427	-36.2%	3,505,058	-51.3%
40 - 49세	8,291,728	6,341,255	-23.5%	3,297,899	-60.2%
50 - 59세	8,587,047	7,004,768	-18.4%	4,695,164	-45.3%
60세 이상	11,938,629	22,128,910	85.4%	20,941,353	75.4%
합 계	51,780,579	49,872,642	-3.7%	39,792,385	-23.2%

자료 : 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추계(2017년 기준)

2044년도는 우리나라 총 인구가 5천만 명 이하로 감소되는 시점이며, 2066년은 우리나라 총 인구가 4천만 명 이하로 감소하는 시점이다. 먼 미래의 수요를 추정하는 것은 다양한 변수를 통제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신뢰성은 낮아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장래 관광객 수 및 소비지출액은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관광수요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예측된 값, 즉 양(量) 대한 정확성을 담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가 관광수요와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런 이유로 다소 먼 미래인 2044년, 2066년을 선정하게 되었는데 이는 특정 상황의 변화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분명한 시점(scenario)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두 시점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먼저 <표3>와 같이 2020년의 국내여행 소비지출 분석내용을 보면, 60세 이상 인구는 여행경험률에 따라 1,050만 명이 여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1,050만 명에 1인 평균 여행지출액을 곱하면 60세 이상의 총 여행지출액이 산출된다. 2020년 국내여행 소비지출 분석 내용을 보면 60세 이상의 여행지출액은 5조 9,560억원이다. 이는 전 연령 여행지출액의 19.3%에 해당된다. 2044년 결과에서는 60세 이상 인구의 총 여행지출액이 11조 390억원으로 나타난다. 이는 전 연령 여행지출액의 38.8%에 해당된다. 2066년 결과에서는 60세 이상 인구의 총 여행지출액이 10조 4,470억원으로 나타난다. 이는 전 연령 여행지출액의 47.3%로서 전 연령 여행지출액의 거의 절반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외생변수가 장래에도 현재와 같이 작용된다는 전제하에 분석되었다. 즉, 물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 관광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 다지역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여 -

가상승률에 따른 여행지출액의 증감, 소득 상승에 따른 여행경험률의 증감 및 국내·외 여행 선택 비중 변화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장래에도 여행경험률과 1인당 소비액은 동일하다는 전제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서 추후 연구에 보완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된다.

1. 다지역 산업연관분석 모형

지역경제성장은 지역을 구성하는 각 산업의 성장에 의해 나타나며, 각 산업의 성장은 그 산업제품에 대한 외부수요 변화에 의해 결정된다. 투입산출모형이 지역경제에 대해 의미있는 분석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개념, 즉 공간의 개념이 고려

<표 3> 국내여행 소비지출 분석

(단위 : 천명, %, 원, 십억원)

구 분		2020년 인구 수 (비중)	여행 경험률	여행자 수 (비중)	1인 평균 여행지출액 (비중)	총 여행지출액 (비중)
2020	15~19세	2,491 (5.5)	90.3	2,249 (5.5)	450,980 (10.3)	1,014 (3.3)
	20~29세	6,972 (15.3)	86.8	6,053 (14.8)	681,588 (15.5)	4,126 (13.4)
	30~39세	7,204 (15.8)	89.4	6,439 (15.8)	900,228 (20.5)	5,796 (18.8)
	40~49세	8,292 (18.2)	93.4	7,748 (19.0)	926,535 (21.1)	7,179 (23.2)
	50~59세	8,587 (18.9)	92.0	7,898 (19.3)	863,720 (19.7)	6,822 (22.1)
	60세 이상	11,939 (26.2)	87.9	10,488 (25.7)	567,839 (12.9)	5,956 (19.3)
	합계	45,484 (100.0)	(평균)90.0	40,875 (100.0)	(평균)731,815 (100.0)	30,892 (100.0)
2044	15~19세	1,683 (3.7)	90.3	1,520	450,980 (10.3%)	685 (2.4)
	20~29세	3,374 (7.5)	86.8	2,929	681,588 (15.5%)	1,997 (7.0)
	30~39세	4,595 (10.2)	89.4	4,107	900,228 (20.5%)	3,698 (13.0)
	40~49세	6,341 (14.1)	93.4	5,925	926,535 (21.1%)	5,490 (19.3)
	50~59세	7,005 (15.5)	92.0	6,443	863,720 (19.7%)	5,565 (19.5)
	60세 이상	22,129 (49.0)	87.9	19,440	567,839 (12.9%)	11,039 (38.8)
	합계	45,128 (100.0)	(평균)90.0	40,365	(평균)731,815 (100.0%)	28,473 (100.0)
2066	15~19세	1,251 (3.4)	90.3	1,130 (3.5)	450,980 (10.3%)	510 (2.3)
	20~29세	2,904 (7.9)	86.8	2,521 (7.7)	681,588 (15.5%)	1,718 (7.8)
	30~39세	3,505 (9.6)	89.4	3,133 (9.6)	900,228 (20.5%)	2,820 (12.8)
	40~49세	3,298 (9.0)	93.4	3,082 (9.5)	926,535 (21.1%)	2,855 (12.9)
	50~59세	4,695 (12.8)	92.0	4,319 (13.3)	863,720 (19.7%)	3,730 (16.9)
	60세 이상	20,941 (57.2)	87.9	18,397 (56.5)	567,839 (12.9%)	10,447 (47.3)
	합계	36,595 (100.0)	(평균)90.0	32,581 (100.0)	(평균)731,815 (100.0%)	22,080 (100.0)

자료 : 연구자 분석자료

Ⅲ. 모형 설정 및 분석

되어야 하며, 공간의 개념이 투입산출표에 반영될 때 비로소 지역 모형은 전국모형과 구분된다. 지역 산업제품에 대한 최종수요 1단위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승수, 소득승수, 부가가치승

수, 고용승수 등에 의해 측정된다. 이와 같은 다지 역모형에서의 승수 측정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김홍배, 2016).

1) 생산유발계수(Output Coefficient)

생산승수는 산업 간의 연관 정도를 나타낸다. 산업 j 의 생산승수가 높으면 이는 타 산업 간의 연관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생산유발계수는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했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산업부문에서 유발되는 직·간접 효과의 합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산업승수행렬 또는 승수행렬이라 한다.(이강욱, 1999; 김홍배, 2016). 즉 산업 j 제품 1단위의 수요변화가 산업 i 에 미치는 효과의 합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를 나타내는 식은 다음 식(2)와 같다.

$$O = (I - A)^{-1} \quad \dots (\text{식}2)$$

2) 부가가치유발계수(Value Added Multiplier)

부가가치는 특정 산업의 생산 활동을 통해 타 산업에서 유발된 피용자 보수, 영업이익, 고정자본 소모 등 새로이 창출된 부가가치를 의미한다.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때 국민경제 전체에서 부가가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의미한다(서한결, 2019).

이를 나타내는 식은 다음 식(3)와 같다.

$$V = \hat{A}^v(I - A^d)^{-1} \quad \dots (\text{식}3)$$

3) 고용유발계수(Employment Multiplier)

산업의 생산량과 산업의 종사자수의 관계가 측정 가능하다면 각 산업제품에 대한 수요의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영향은 고용승수에 의해 측정된다. 고용승수는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때 각 산업에서 유발되는 직·간접적인 고용자의 수를 의미한다(이강욱, 1999; 김홍배, 2016).

이를 나타내는 식은 다음 식(4)와 같다.

$$E = \hat{A}^E(I - A)^{-1} \quad \dots (\text{식}4)$$

MRIO(Many-Region Input-Output Model)를 이용하여 관광소비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입산출표에서 관광산업은 분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광산업을 분류하여 이를 외생화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에서 2015년 발행한 지역산업연관표의 통합 중분류 부문으로부터 관광부문을 재분류하였다.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육상운송서비스, 수상운송서비스, 항공운송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문화 및 여행 관련 서비스, 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를 관광산업으로 분류하여 외생화 하였다. 이를 다시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는 '쇼핑 및 기타'로,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는 '숙박 및 식음'으로, 육상·수상·항공운송서비스는 '교통'으로, 문화 및 여행관련 서비스와 스포츠 및 오락서비스는 '여유행활동'으로 통합 재분류하였다.

<표4>는 2020년, 2044년, 2066년의 지역별(지출 유형) 소비지출액을 나타낸 자료이다.

2020년 전국기준으로 관광산업의 네 가지 지출 부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항목은 '숙박/식음' 부문이다. 지역별 합계소비액이 높은 지역은 강원(4조 1,559억원), 제주(3조 5,445억원), 경기(3조 4,694억원) 순서로 나타났다.

2044년 전국기준으로 관광산업의 네 가지 지출 부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항목은 역시 '숙박/식음' 부문이다. 지역별 합계소비액이 높은 지역은 강원(3조 6,422억원), 경기(3조 1,402억원), 제주(3조 1,255억원) 순서로 나타났다. 2066년 전국기준으로 관광산업의 네 가지 지출부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항목도 '숙박/식음' 부문이다. 지역별 합계소비액이 높은 지역은 강원(2조 7,785억원), 경기(2조 4,267억원), 제주(2조 4,108억원) 순서로 나타났다.

분석된 세 개의 시점을 비교해보면 가장 많은 지출이 발생한 부문은 숙박/식음으로 모두 동일하다. 지역별 합계소비액을 비교해보면 세 개 시점 모두 강원도에서의 지출이 가장 높다. 다음은 경기, 제주 순인데 2020년도에서만 제주가 경기를 앞섰고, 근소한 차이지만 2044년, 2066년은 경기도가 제주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2. 관광산업 분류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 관광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 다지역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여 -

<표 4> 지역별(지출유형) 소비지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44년	2066년
서울	관광산업	쇼핑/기타	419,890	402,093	321,235
		교통	497,916	476,811	380,928
		숙박/식음	1,115,497	1,068,215	853,406
		여행활동	166,375	159,323	127,285
		소 계	2,199,678	2,106,442	1,682,854
인천	관광산업	쇼핑/기타	168,082	161,381	127,734
		교통	199,315	191,369	151,470
		숙박/식음	446,532	428,730	339,343
		여행활동	66,600	63,945	50,613
		소 계	880,529	845,425	669,160
경기	관광산업	쇼핑/기타	662,271	599,415	463,218
		교통	785,336	710,800	549,295
		숙박/식음	1,759,413	1,592,428	1,230,604
		여행활동	262,415	237,509	183,544
		소 계	33,469,435	23,140,152	22,426,661
대전	관광산업	쇼핑/기타	128,512	125,091	98,033
		교통	152,392	148,336	116,250
		숙박/식음	341,409	332,322	260,438
		여행활동	50,921	49,566	38,844
		소 계	673,234	655,315	513,565
세종	관광산업	쇼핑/기타	17,574	16,357	12,752
		교통	20,840	19,396	15,121
		숙박/식음	46,689	43,454	33,877
		여행활동	6,964	6,481	5,053
		소 계	92,067	85,688	66,803
충북	관광산업	쇼핑/기타	205,809	198,168	152,956
		교통	244,053	234,992	181,379
		숙박/식음	546,759	526,460	406,350
		여행활동	81,549	78,521	60,607
		소 계	1,078,170	1,038,141	801,292
충남	관광산업	쇼핑/기타	445,311	424,300	327,978
		교통	528,060	503,145	388,924
		숙박/식음	1,183,029	1,127,212	871,318
		여행활동	176,448	168,123	129,956
		소 계	2,332,848	2,222,780	1,718,176
광주	관광산업	쇼핑/기타	80,083	79,532	63,241
		교통	94,965	94,310	74,993
		숙박/식음	212,752	211,286	168,009
		여행활동	31,732	31,513	25,058
		소 계	419,532	416,641	331,301
전북	관광산업	쇼핑/기타	338,476	322,409	251,091
		교통	401,372	382,320	297,749
		숙박/식음	899,208	856,523	667,057
		여행활동	134,116	127,750	99,491
		소 계	1,773,172	1,689,002	1,315,388

전남	관광산업	쇼핑/기타	487,077	476,108	374,828
		교통	577,587	564,580	444,479
		숙박/식음	1,293,987	1,264,847	995,782
		여행활동	192,997	188,651	148,520
		소 계	2,551,648	2,494,186	1,963,609
대구	관광산업	쇼핑/기타	110,706	101,653	79,443
		교통	131,278	120,543	94,206
		숙박/식음	294,106	270,056	211,052
		여행활동	43,866	40,279	31,478
		소 계	579,956	532,531	416,179
경북	관광산업	쇼핑/기타	447,026	419,730	323,093
		교통	530,094	497,726	383,131
		숙박/식음	1,187,586	1,115,071	858,341
		여행활동	177,128	166,312	128,021
		소 계	2,341,834	2,198,839	1,692,586
부산	관광산업	쇼핑/기타	386,741	320,600	244,219
		교통	458,606	380,175	289,600
		숙박/식음	1,027,430	851,717	648,800
		여행활동	153,240	127,033	96,768
		소 계	2,026,017	1,679,525	1,279,387
울산	관광산업	쇼핑/기타	61,730	56,320	43,749
		교통	73,201	66,785	51,879
		숙박/식음	163,994	149,621	116,225
		여행활동	24,460	22,316	17,335
		소 계	323,385	295,042	229,188
경남	관광산업	쇼핑/기타	467,739	440,196	340,658
		교통	554,655	521,995	403,961
		숙박/식음	1,242,612	1,169,441	905,006
		여행활동	185,335	174,421	134,981
		소 계	2,450,341	2,306,053	1,784,606
강원	관광산업	쇼핑/기타	793,307	695,245	530,378
		교통	940,722	824,437	628,934
		숙박/식음	2,107,530	1,847,013	1,409,022
		여행활동	314,336	275,481	210,154
		소 계	①4,155,895	①3,642,176	①2,778,488
제주	관광산업	쇼핑/기타	676,608	596,627	460,189
		교통	802,337	707,494	545,702
		숙박/식음	1,797,502	1,585,021	1,222,555
		여행활동	268,096	236,405	182,343
		소 계	②3,544,543	③3,125,547	③2,410,789
전국	관광산업	쇼핑/기타	5,896,941	5,435,223	4,214,796
		교통	6,992,729	6,445,213	4,998,002
		숙박/식음	15,666,035	14,439,419	11,197,186
		여행활동	2,336,576	2,153,627	1,670,051
		합 계	30,892,281	28,473,482	22,080,035

자료 : 연구자 분석자료

3.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1) 생산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 분석결과는 <표5>와 같다. 생산유발효과는 관광산업 4개 부문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하였을 경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타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된 수준을 나타낸다. 전국단위에서 세 개 시점을 각각 비교해 봤을 때, 2044년은 2020년 대비 7.8% 정도 생산유발효과가

감소된다. 2066년은 2020년 대비 28.5%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66년에 감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35.0%)이며, 다음으로 강원도(32.8%), 제주(31.8%)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관광산업 보다 비관광산업의 생산유발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지역은 세종, 충북, 울산 지역이다. 해당지역은 상대적으로 관광 및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표 5> 관광소비지출 생산유발효과

(단위 : 억원, %)

구 분		2020	2044		2066	
		생산유발	생산유발	증감률	생산유발	증감률
서울	관광	35,897	33,913	-5.53	26,819	-25.29
	비관광	28,080	26,000	-7.41	20,239	-27.92
	소 계	63,977	59,912	-6.35	47,059	-26.44
인천	관광	11,414	10,878	-4.69	8,578	-24.85
	비관광	10,264	9,491	-7.53	7,381	-28.09
	소 계	21,678	20,369	-6.04	15,959	-26.38
경기	관광	40,541	36,768	-9.31	28,428	-29.88
	비관광	36,096	33,147	-8.17	25,698	-28.81
	소 계	76,637	69,915	-8.77	54,126	-29.37
대전	관광	7,688	7,457	-3.01	5,839	-24.05
	비관광	3,625	3,416	-5.77	2,659	-26.65
	소 계	11,313	10,873	-3.89	8,498	-24.88
세종	관광	981	914	-6.90	712	-27.43
	비관광	1,156	1,074	-7.09	835	-27.80
	소 계	2,137	1,988	-7.00	1,547	-27.63
충북	관광	11,653	11,201	-3.88	8,647	-25.79
	비관광	11,972	11,165	-6.74	8,658	-27.68
	소 계	23,625	22,366	-5.33	17,305	-26.75
충남	관광	24,581	23,406	-4.78	18,095	-26.39
	비관광	20,602	19,243	-6.60	14,911	-27.62
	소 계	45,183	42,649	-5.61	33,006	-26.95
광주	관광	5,151	5,082	-1.34	4,031	-21.74
	비관광	3,726	3,542	-4.94	2,775	-25.54
	소 계	8,877	8,624	-2.85	6,806	-23.33
전북	관광	19,097	18,179	-4.81	14,157	-25.87
	비관광	11,201	10,508	-6.19	8,182	-26.95
	소 계	30,298	28,687	-5.32	22,339	-26.27
전남	관광	27,001	26,364	-2.36	20,750	-23.15
	비관광	18,449	17,363	-5.89	13,547	-26.57
	소 계	45,450	43,727	-3.79	34,297	-24.54
대구	관광	7,025	6,460	-8.05	5,042	-28.23
	비관광	5,044	4,658	-7.64	3,618	-28.26
	소 계	12,069	11,118	-7.88	8,660	-28.24

경북	관광	24,811	23,285	-6.15	17,927	-27.75
	비관광	19,126	17,722	-7.34	13,707	-28.33
	소 계	43,937	41,007	-6.67	31,634	-28.00
부산	관광	23,457	19,628	-16.32	14,975	-36.16
	비관광	10,563	9,289	-12.07	7,146	-32.35
	소 계	34,020	28,917	①-15.00	22,121	①-34.98
울산	관광	3,699	3,377	-8.71	2,622	-29.11
	비관광	13,838	12,733	-7.99	9,876	-28.63
	소 계	17,537	16,109	-8.14	12,499	-28.73
경남	관광	26,514	24,921	-6.01	19,286	-27.26
	비관광	18,955	17,588	-7.21	13,630	-28.09
	소 계	45,469	42,510	-6.51	32,915	-27.61
강원	관광	44,068	38,646	-12.30	29,488	-33.08
	비관광	12,076	10,752	-10.97	8,253	-31.66
	소 계	56,144	49,398	②-12.02	37,741	②-32.78
제주	관광	38,052	33,572	-11.77	25,897	-31.94
	비관광	7,576	6,746	-10.96	5,213	-31.20
	소 계	45,628	40,318	③-11.64	31,110	③-31.82
전국	관광	351,630	324,049	-7.84	251,293	-28.53
	비관광	232,348	214,436	-7.71	166,328	-28.41
	합 계	583,978	538,485	-7.79	417,621	-28.49

자료 : 연구자 분석자료

2) 부가가치유발효과

부가가치효과의 분석 결과는 <표6>과 같다. 전국 단위에서 세 개 시점을 각각 비교해 봤을 때, 2044년은 2020년 대비 7.9% 정도 부가가치유발효과가 감소된다. 2066년은 2020년 대비 28.6%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66년에 감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34.8%)이며 다음으로 강원도

(32.8%), 제주(31.8%)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관광산업보다 비관광산업의 부가가치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지역은 세종, 울산 지역이다. 두 지역은 관광 및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면서, 행정중심 도시 및 공업중심 도시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추측된다.

<표 6> 관광소비지출 부가가치효과

(단위 : 억원, %)

구 분		2020	2044		2066	
		부가가치유발	부가가치유발	증감률	부가가치유발	증감률
서울	관광	15,184	14,326	-5.65	11,317	-25.46
	비관광	14,869	13,768	-7.41	10,717	-27.92
	소 계	30,052	28,093	-6.52	22,035	-26.68
인천	관광	4,667	4,448	-4.70	3,507	-24.85
	비관광	4,224	3,905	-7.53	3,037	-28.09
	소 계	8,891	8,353	-6.04	6,545	-26.39
경기	관광	17,043	15,463	-9.27	11,957	-29.84
	비관광	15,515	14,248	-8.17	11,046	-28.81
	소 계	32,558	29,711	-8.74	23,003	-29.35
대전	관광	3,501	3,394	-3.06	2,657	-24.10
	비관광	1,810	1,706	-5.77	1,328	-26.65
	소 계	5,311	5,100	-3.98	3,985	-24.97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 관광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 다지역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여 -

세종	관광	435	405	-6.90	316	-27.44
	비관광	452	420	-7.09	326	-27.80
	소 계	887	825	-7.00	642	-27.62
충북	관광	5,138	4,937	-3.90	3,812	-25.81
	비관광	4,803	4,480	-6.74	3,474	-27.68
	소 계	9,941	9,417	-5.27	7,286	-26.71
충남	관광	9,999	9,520	-4.79	7,360	-26.39
	비관광	7,418	6,929	-6.60	5,369	-27.62
	소 계	17,417	16,448	-5.56	12,729	-26.92
광주	관광	2,280	2,247	-1.45	1,781	-21.86
	비관광	1,560	1,483	-4.94	1,162	-25.54
	소 계	3,840	3,730	-2.87	2,943	-23.36
전북	관광	7,975	7,591	-4.81	5,912	-25.87
	비관광	4,510	4,231	-6.19	3,295	-26.95
	소 계	12,485	11,822	-5.31	9,206	-26.26
전남	관광	10,642	10,390	-2.37	8,177	-23.16
	비관광	6,727	6,331	-5.89	4,939	-26.57
	소 계	17,369	16,720	-3.73	13,116	-24.48
대구	관광	3,152	2,899	-8.02	2,262	-28.23
	비관광	2,363	2,182	-7.64	1,695	-28.26
	소 계	5,515	5,081	-7.86	3,957	-28.24
경북	관광	10,475	9,830	-6.16	7,568	-27.75
	비관광	7,002	6,488	-7.34	5,018	-28.33
	소 계	17,476	16,318	-6.63	12,586	-27.98
부산	관광	9,624	8,068	-16.17	6,157	-36.02
	비관광	4,962	4,363	-12.07	3,356	-32.35
	소 계	14,586	12,431	①-14.77	9,514	①-34.77
울산	관광	1,465	1,337	-8.70	1,039	-29.10
	비관광	3,988	3,669	-7.99	2,846	-28.63
	소 계	5,453	5,007	-8.18	3,885	-28.76
경남	관광	11,298	10,618	-6.02	8,217	-27.27
	비관광	7,106	6,593	-7.21	5,109	-28.09
	소 계	18,404	17,211	-6.48	13,326	-27.59
강원	관광	20,287	17,792	-12.30	13,576	-33.08
	비관광	6,298	5,607	-10.97	4,304	-31.66
	소 계	26,585	23,399	②-11.98	17,879	②-32.75
제주	관광	17,358	15,314	-11.77	11,813	-31.94
	비관광	4,115	3,664	-10.96	2,831	-31.20
	소 계	21,472	18,978	③-11.62	14,645	③-31.80
전국	관광	150,521	138,578	-7.93	107,428	-28.63
	비관광	97,721	90,066	-7.83	69,853	-28.52
	합 계	248,241	228,644	-7.89	177,281	-28.59

자료 : 연구자 분석자료

3) 고용효과

고용효과와 분석 결과는 <표7>과 같다. 전국단위에서 세 개 시점을 각각 비교해 봤을 때, 2044년은 2020년 대비 7.9% 정도 고용효과가 감소된다. 2066년은 2020년 대비 28.6%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66년에 감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34.8%)이며 다음으로 강원도(32.7%), 제주

(31.8%)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관광산업보다 비관광산업의 부가가치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지역은 울산지역에만 국한된다. 울산지역은 대규모 공단이 입지하고 있는 공업중심 도시로서 관광 및 서비스산업 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 부문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는 낮은 수준으로 분석된다.

<표 7> 관광소비지출 고용효과

(단위 : 억원, %)

구 분		2020	2044		2066	
		고용유발	고용유발	증감률	고용유발	증감률
서울	관광	8,538	8,059	-5.61	6,369	-25.40
	비관광	7,136	6,608	-7.41	5,144	-27.92
	소 계	15,674	14,666	-6.43	11,513	-26.55
인천	관광	2,244	2,139	-4.69	1,687	-24.84
	비관광	1,944	1,798	-7.53	1,398	-28.09
	소 계	4,189	3,937	-6.01	3,085	-26.35
경기	관광	9,291	8,430	-9.27	6,518	-29.85
	비관광	7,028	6,454	-8.17	5,003	-28.81
	소 계	16,319	14,884	-8.80	11,522	-29.40
대전	관광	2,058	1,995	-3.03	1,562	-24.08
	비관광	869	819	-5.77	638	-26.65
	소 계	2,927	2,814	-3.84	2,200	-24.84
세종	관광	223	208	-6.90	162	-27.44
	비관광	214	199	-7.09	155	-27.80
	소 계	437	407	-6.99	316	-27.61
충북	관광	2,695	2,590	-3.90	1,999	-25.80
	비관광	1,987	1,853	-6.74	1,437	-27.68
	소 계	4,682	4,443	-5.10	3,437	-26.60
충남	관광	5,072	4,829	-4.79	3,733	-26.39
	비관광	2,858	2,669	-6.60	2,069	-27.62
	소 계	7,930	7,499	-5.44	5,802	-26.84
광주	관광	1,258	1,240	-1.40	984	-21.81
	비관광	748	711	-4.94	557	-25.54
	소 계	2,006	1,952	-2.72	1,541	-23.20
전북	관광	3,921	3,732	-4.81	2,906	-25.87
	비관광	2,165	2,031	-6.19	1,581	-26.95
	소 계	6,086	5,763	-5.30	4,488	-26.26
전남	관광	4,972	4,855	-2.37	3,821	-23.16
	비관광	2,460	2,315	-5.89	1,806	-26.57
	소 계	7,432	7,169	-3.53	5,627	-24.29
대구	관광	1,709	1,572	-8.04	1,227	-28.23
	비관광	1,194	1,103	-7.64	857	-28.26
	소 계	2,903	2,675	-7.87	2,083	-28.24
경북	관광	5,246	4,923	-6.15	3,790	-27.75
	비관광	2,846	2,637	-7.34	2,039	-28.33
	소 계	8,091	7,560	-6.57	5,830	-27.95
부산	관광	4,887	4,096	-16.18	3,126	-36.04
	비관광	2,446	2,151	-12.07	1,655	-32.35
	소 계	7,333	6,247	①-14.81	4,781	①-34.81
울산	관광	722	659	-8.70	512	-29.10
	비관광	1,240	1,141	-7.99	885	-28.63
	소 계	1,962	1,800	-8.25	1,397	-28.80
경남	관광	5,655	5,314	-6.02	4,113	-27.27
	비관광	3,441	3,193	-7.21	2,475	-28.09
	소 계	9,096	8,508	-6.47	6,587	-27.58
강원	관광	9,966	8,740	-12.30	6,669	-33.08
	비관광	3,212	2,859	-10.97	2,195	-31.66
	소 계	13,178	11,599	②-11.98	8,863	②-32.74
제주	관광	8,438	7,445	-11.77	5,743	-31.94
	비관광	1,970	1,754	-10.96	1,356	-31.20
	소 계	10,408	9,199	③-11.62	7,098	③-31.80
전국	관광	76,895	70,826	-7.89	54,921	-28.58
	비관광	43,758	40,295	-7.91	31,248	-28.59
	합 계	120,653	111,121	-7.90	86,169	-28.58

자료 : 연구자 분석자료

IV. 결론 및 정책제언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가 장차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알아보기 위해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는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적으로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연구자는 고령사회가 더욱 심화될수록 소득 높은 고령자가 증가하고 삶의 여유와 질을 중시하는 시대로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따라서 여행이 더욱 활성화되고 장차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물가상승률, 소득향상 등의 조건을 현 시점과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연구를 진행했을 때, 여행을 할 수 있는 인구의 물리적인 양의 감소는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비관광산업도 위축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이하, 4천만 이하 시점을 시나리오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산출된 인구수나, 관광객 수, 관광지출액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담보하지 않는다. 다만, 시간적 흐름에 따라 인구감소 및 고령화와 같은 현상이 주어져 있을 때 현시점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한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는지를 예측할 수 있었고, 정책입안자는 그에 대해 어떤 대비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찰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전체적으로 소비지출액 및 파급효과 감소폭이 큰 부산, 강원, 제주는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감소폭이 작은 광주, 전남, 대전은 어떤 이유로 타 지역에 비해 감소폭이 작게 산출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주요 관광시설과 콘텐츠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에서의 연령별 주요활동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본 연구에서의 가장 큰 한계는 지역별 소비지출액 및 파급효과 감소가 정확히 고령화에 기인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령별 소비지출액에 대한 지역별 파급효과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후속 연구에서 분석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내국인이 선택할 수 있는 관광의 범위를 국내로 국한하였다. 만약 국내여행과 해외여행 중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해외여행을 선택하는 비중이 더욱 높게 나타난다면 본 연구 결과보다 더 침체된 경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결론은 고령인구는 급증하고 있고 이들의 소비 비중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현상은 당분간 지속 될 것이지만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고령인구 포함 전 연령대에서 침체기가 올 것이다. 이를 맞이하고 대비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부분에서 정책적 준비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부정적 효과는 단기간에 반전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용문헌

References

- 고태호(2006), "MRIO 모형을 이용한 관광수요변화 예측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레저학회
- 고태호·황경수·김익근·오상훈(2010), "MRIO 모형을 통한 지역간 관광산업 경쟁력 비교 연구", 한국관광레저학회
- 김한주(2016), "지역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광역 시도별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이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레저학회
- 김현주·최경은·김형종(2020),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내관광 정책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홍배(2016), 도시 및 지역경제 분석론, 기문당.
- 문화체육관광부(2015a, 2016b, 2017c, 2018d, 2019e), 2015~2019 국민여행실태조사
- 박문수(2016), 연령별 관광소비패턴 변화의 내수파급효과 및 시사점, 산업연구원
- 박상곤(2017), 국내관광 수요예측 모형 개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박승규·이제연(2016), 고령화의 지역경제효과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서한결·이인우·정양현(2019), "신재생에너지 가치사슬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분석 연구:2010, 2015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한국경영교육학회
- 설영훈(2015),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충북연구원
- 윤갑식(2008), "충청권지역의 산업간·지역간 연관구조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
- 이강욱·류광훈(1999),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한국관광연구원

14. 이강욱(2009),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한 관광산업의 경제 파급효과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5. 이강욱(2011), 관광산업의 경제효과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16.. 이진면·한정민·김재진·이용호·김바우(2013), 인구고령화가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산업연구원
17. 이충기(2017), “산업연관모델을 이용한 복합리조트 카지노의 산업분류와 경쟁력 분석”, 한국관광학회
18. 이충기·송학준·문지효(2011), “지역간 산업연관모델(IRIO)를 이용한 인바운드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대한관광경영학회
19. 장경원·홍근석(2018), “인구구조 변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지방재정학회
20. 정옥영·지계웅(2017), “인구구조 변화가 외식산업의 소비비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관광연구학회
21. 제현정·이희연(2017), “지역별 인구구조 변화와 유형별 특성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
22. 주수현·이선영·오홍철(2009), “다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부산 비엔날레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한국관광레저학회
23. 지봉구·김태구·이계희(2011),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24. 통계청(2017), 전국 장래인구추계(2017~2065),
25. 통계청(2019),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27. 한국은행(2018), 인구구조 고령화의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과 정책과제
28. Ian·Heike.A.(2013), “ A Sclerosis of demography How ageing populations lead to decline of New Zealand tourism”, Journal of vacation Marketing·April 2013

도시재생사업의 주민주도 운영 앵커시설의 필요성과 만족 에 관한 이용자 인식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 5개 근린재생 일반형 사업지역 중 상도4동, 성수, 암사를 대상으로-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User's Perception on the Necessity and Satisfaction of Anchor Facilities for Resident-led Operation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 Among the five neighborhood regeneration general business areas in Seoul, Sangdo 4-dong, Seongsu, and Amsa -

박재라** · 구자훈***

Park, Jae-Ra · Koo, Ja-Hoon

Abstract

This study derived the user's perception characteristics of anchor facilities in urban regeneration areas operated by residents and suggested policy directions for stable resident-led operation of anchor facilities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s a result of the perception analysis of the need for resident-led anchor facilities, the anchor facilities are recognized as necessary facilities for urban regeneration, but the need for anchor facilities to exist only as physical facilities is relatively low. Overall satisfaction with resident-led anchor facilities was high in the order of Seongsu-dong, Amsa-dong, and Sangdo 4-dong, and anchor facilities were fully recognized as facilities related to fostering community awarenes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the anchor facilities of the first phase of the Seoul-type urban regeneration project are in full operation under the leadership of residents, and the user-aware characteristics of the anchor facilities are check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policy proposals for stable operation of anchor facilities led by residents in urban regeneration areas shall be as follows: First, when establishing anchor facilities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t is necessary to objectify residents' opinions, visualize the residents' participation process, and disclose the atmosphere of residents' participation in anchor establishment. Second, various and valid community design techniques should be developed and applied to reasonably reflect residents' opinion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chors. Third, in order for anchor facilities to operate in a stable resident-led manner even after the end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timely support is needed so that residents do not give up on the operation of anchor facilities led by the public.

키워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앵커시설, 주민주도, 자주적 운영관리, 일원배치분석

Keywords Seoul Urban Regeneration Project, Anchor Facilities, Resident-led, Self-Management, Community Consciousness, Ordinal Logistic Regression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연구 목적

2012년 이후 서울시의 도시재생은 여러 시행착오와 국내의 선도 사례들을 배출 하며 도시재생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로 접어들었다. 2015년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출범 이후 같은 해 12월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수립으로 서울형 도시재생 1단계 사업구역 13개소를 선정하였고, 당시 선정된 지역들이 올해로 6년차에 진입하였다.

이들 지역 중, 근린재생 일반형 사업지역의 앵커시설은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그 중 주민주도 앵커시설의 운영은 서울형 도시재생 일반근린형의 주민참여 성과지표로서 언급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 앵커시설 조성사업을 '도시재생의 축소판'으로 계획의 수립, 실행과정에서 행정적 절차, 거버넌스 등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인지하고, 2019년 '주민참여형 앵커시설 기획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앵커시설의 조성에 주민들의 참여 중요성을 강조하며 앵커시설 조성사업의 실행과정의 다양한 이슈 및 설립 단계별 반드시 고려해야하

* 이 논문은 주저자의 2021년 석사학위논문을 기반으로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 Master Candidate, Graduate School of Urban Studies, Hanyang University

***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jhkoo@hanyang.ac.kr)

는 주요 사항을 정리하고 배포하는 등 앵커시설에 주민참여가 중요함을 알리는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지역의 '앵커시설의 설치'가 사업지역이 상이함에도 차별성 없는 모습, 앵커시설의 비수익운영 행태가 장기화되면서 도시재생 사업종료 이후의 실질적 지역자력 재생에 대한 한계점이 나타난 대표적 세부 사업 항목으로서 화두에 오르고 있다.

이에,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1단계 사업지의 앵커시설이 주민주도로 본격 운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주민주도 운영 앵커시설에 대한 지역별 이용자 인식의 차이 특성을 점검하고 향후 주민주도 앵커시설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서울시 근린재생 일반형 사업지역에서 주민주도 앵커시설 설립추진이 최초로 시작된 2015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이다.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근린재생 일반형 지역 1단계 사업지역 중 주민주도 운영 중인 상도4동(상도 어울마당), 암사동(암사 상상나루래), 성수동(나눔공유센터)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은 각 대상지의 앵커시설 운영자 및 앵커시설 이용 경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주민주도 운영 앵커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주민주도 운영 앵커시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분석결과 등 이상을 바탕으로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의 앵커시설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이론 고찰 및 선행연구의 분석으로 추출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반구조화 면접(semi-structure interview) 질문지 작성, 문헌조사 및 현장방문, 운영자 대상 반구조화 면접(semi-structure interview)수행으로 대상지 앵커시설의 설립 및 운영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주도 운영 도시재생사업 앵커시설에 대한 인식특성 분석을 위한 독립변수 도출하였으며, 주민주도 앵커시설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이용자 인식을 5점 척도 및 서술형 기입 응답으로 조사하였다.

이용자 설문 응답방법은 설문항목의 제시문장에 대하여 의견중립 기준점인 '③중립'을 기준으로 하여 '①비동의'와 '⑤동의'사이의 점수를 각 설문항목별로 해당되는 번호에 표기(√ 또는 O)하는 5점 척도로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인, 앵커시설 필요성에 대한 이용자 인식, 주민주도 앵커시설 운영에 대한 이용자 인식에 대하여 대상

지별 차이 확인을 위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시행하고, 사후검정으로 Scheffe검정과 기호 통계량으로 Dunnett T3를 적용하였다. 분석도구는 SPSS 22.0을 사용하였다.

II. 이론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 도시재생 앵커시설과 거점기능

도시재생 앵커시설은 도시재생 사업에서 대표적 '거점공간'이다. 또한, 재생 지역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서의 물리적 영역을 의미한다. 국내연구에서는 '거점'을 지역발전의 핵심공간 및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구심적 물리적 공간으로 정의하며, 지역사회 공동체의 중심기능이 집적된 활동의 장으로 정리하고 있다. 국외문헌에서는 '거점공간'을 도시간의 연결공간인 앵커(Anchor)로서, 대규모의 도시기반시설을 지칭한다. 특히, 대학교(university)가 도시 거점으로서의 기능 수행해야함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 앵커시설을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 사업비가 들어간 지역 내 필요로 하는 시설"이자, "주민모임 및 비영리 민간법인 단체, 협동조합, (예비)사회적 기업, 도시재생기업(CRC)등이 운영주체로 공간의 운영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서울시, 2018)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 앵커시설'을 '지역의 변화를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의 공간이자 지속가능한 지역 재생을 위하여 지역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과 주민을 위한 활동 수행이 가능한 물리적 공간'으로 정의한다.

2. 자주적 운영관리(Self-management)

프랑스의 마르크스주의 철학자인 앙리 르페브르(Lefebvre, 1968)은 자주관리(autogestion)의 개념화와 함께 "자주관리가 일상에서 공간을 생산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는 르페브르가 명시한 '자주관리'의 개념을 거점공간의 조성과 운영상 맥락에서 '자주적 운영관리(self-management)'를 실제적 개념으로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김수진, 진영호, 2021)

앙리 르페브르에 의해 제안된 '도시에 대한 권리(le droit à la ville)'는 도시를 공동 창조의 공간으로 바라보고, 도시를 복원하는 행동을 촉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도시공간에 대한 접근, 점유, 사용의 권리를 통하여 도시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과 관련 있다. (Lefebvre H., 1968) 여기에는 "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도시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한 도시로 변혁해야한다."라는 르페브르의 핵심 사유가 담겨있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도시에 대한 권리는 다른

도시재생사업의 주민주도 운영 앵커시설의 필요성과 만족에 관한 이용자 인식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 5개 근린재생 일반형 사업지역 중 상도4동, 성수, 암사를 대상으로-

관리들보다 상위 형태의 권리(강현수,2009)이며, 다른 주체나 권력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가 아닌 주체들의 연대로 획득되는 권리(박세훈,2016)이다.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첫째, 앵커시설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들은 앵커시설의 특징, 기능에 대한 분석이 대부분이고,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 지역 중 주민주도형 앵커시설에 대한 집중 분석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지역에서의 도시재생 앵커시설 설립의 필요성 인식 분석으로 앵커시설이 재생사업지에서 실수요 시설로 인지되고 있는지를 데이터화하여 분석하는 연구로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둘째, 주민주도 및 자주적 운영관리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주민참여 관련 연구는 다수이나, '주민주도'와 관련된 연구는 희소하다. 재생사업에 주민참여를 높이는 영향요인분석,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수준에 따른 사업 만족도 연구,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과 공공의 관계형성에 관한 질적 연구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앵커시설의 필요성, 주민주도 운영 앵커시설에 대한 이용자 만족인식'을 대상 지역별로 분석하고,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III. 분석의 틀

1. 대상지 선정 및 현황

1) 대상지 선정기준

2015년도 서울시 3+5 근린재생 일반형 도시재생사업가운데, 서울시가 지정한 5개 사업의 앵커시설 중 주민주도 운영이 확인된 상도4동 상도어울마당, 암사동 상상나루래, 성수동 나눔 공유센터 및 해당 사업 대상지역을 본 연구의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표 2 대상지선정기준

사업 선정	지역	앵커시설	앵커시설 운영시작시기	주민주도 운영시작시기	운영기관	주민주도 운영여부	최종선정
서울특별시	장위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	19.03	-	성북문화재단	X	X
	상도4동	상도 어울마당	19.07	19.07	상4랑 협동조합	○	●
	신촌	신촌 파랑고래	19.05	-	서대문구청	X	X
	암사	상상나루래	18.12	19.01	암사 도시재생 사회적 협동조합	○	●
	성수	나눔공유센터	20.04	20.04 (21.01-본 계약)	성수지영 협동조합	○	●
국토교통부	창신·송인	회오리마당, 토월, 수수헌	17.03	17.03	창신송인 도시재생협동조합	○	X
	가리봉	가리봉 행복마루, 원영센터	18.10	-	구로구청	X	X
	해방촌	해방촌 공동이용시설	20.07	20.07	남산아래 첫 마을	○	X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시 관내에 지정한 근린재생 사업지역 가운데, 주민주도 운영의 앵커시설이 있는 창신·송인, 해방촌의 경우, 본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창신·송인의 경우, 사업 지역 내 여러 앵커시설을 두고 있으며, 모든 앵커시설을 주민주도 100%로 운영하지 않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주민주도 운영이기는 하나, 시립미술관과 함께 운영 중이거나, 시설 내 일부 공간 프로그램에 한정하여 주민주도로 운영하고 있다.

해방촌의 경우, '해방촌 주민공동이용시설(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이름의 앵커 시설에 남산아래 첫 마을(CRC)이 사무실 입주하여 앵커시설을 운영 중이기는 하나, 시설 관리 운영권에 한하여 주민주도 형태이며, 주민주도의 수익사업을 통한 앵커시설 운영비용을 운영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재정 영역까지 100% 주민 주도로 운영되기를 계획한 시설이 아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00% 주민주도 운영을 목표로 시설 운영이 진행되고 있는 상도 4동, 암사동, 성수동을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2) 대상지 현황

(1) 상도 어울마당

상도 어울마당은 어린이 문화·놀이 특화공간을 통한 마을 브랜드의 강화, 마을의 수익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한 재생동력의 확보, 시민 방문객의 증가 유도 및 골목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019년 7월 개소와 동시에 주민주도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15개월간 COVID-19 확산 예방 조치로 앵커시설이 임시 폐쇄중이었으며, 실제 앵커시설 전면 개방운영이 이루어진 기간은 약 6개월이다. COVID-19 팬데믹으로 재정운영 악화상황에도 주민주도로 100%운영 중에 있으며, 관찰구청 재정지원은 없다. 이에, 상도 어울마당은 상4랑 협동조합의 주요 수익사업으로 진행중인 청소용역과 건물위생관리 용역,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앵커시설 운영비용을 충당해왔다.

연구조사시점 기준으로 1층 카페와 협동조합 사무공간으로 3층 사무실이 방역수칙에 따른 제한적 운영중이다. 또한,

2021년 4월 기준 상4랑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80명이며, 이중 실제로 활동하는 조합원은 약 20%이며, 적극 참여 조합원은 전체 조합원의 약 4%이다.²⁾

(2) 암사 상상나루래(來)

암사 상상나루래(來)는 앵커시설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관련 역량 집중으로 재생사업의 시너지 효과 및 주민이 희망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2019년 1월부터 1년간 주민협의체가 운영하였으나, 예정된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운영권 포기 하였고,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앵커시설의 공간을 층별로 각기 분담하여 주민주도 운영을 시행하였으며, 그 후 층별 공간운영자제로 운영자가 통합되지 않아, 재생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앵커시설을 주도 운영할 조직이 부재하여 두 시기가 일치하지 않다.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암사 도시재생 사회적 협동조합의 앵커시설 시범 운영 후 현재는 암사 도시재생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모든 공간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20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7개월간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재정운영이 어려워, 강북 구청으로부터 공과금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받았다.

(3) 성수 나눔공유센터

성수 나눔공유센터는 온 세대 문화기능과 복지기능의 향상과 주민과 직장인 커뮤니티의 활성화 및 정보교류와 협업기회의 마련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목표로 설립되었다. 2020년 4월 개소 후 약 9개월 동안 성수지영 협동조합의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본 운영하고 있다.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COVID-19 팬데믹 현상 여파로, 운영이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으며,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8개월간의 운영비 중 건물관리비(전기, 수도, 가스, 통신료 등 일반관리비)를 성동구청이 재정지원 하였다. 이 기간을 제외한 실질적 주민주도 운영기간은 약 5개월이다. 2021년 4월 기준 지자체로부터 성수지영 협동조합이 받는 재정지원은 0%이며, 100% 주민주도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조합원은 110명³⁾이며, 조합원 대부분은 경력이 단절된 30대~60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눔 공유센터에서 창출된 수익의 40%이상은 마을기금으로 조성된다.

2. 연구모형의 설정

1) 변수도출 개요

본 연구의 양적 설문 항목 설정을 위하여 다음의 독립변수 도출과정을 수행하였다.

표 3 연구대상지 앵커시설 운영 종합비교(2021년 4월기준)

구분	상도어울마당	상상나루래	나눔공유센터
지역	상도4동	암사동	성수동
앵커시설개소	2019. 07	2019. 04	2020.04
실제주민주도 운영시점	2019. 07	2020. 01	2020.04
주민주도 운영기간 (100%주민주도 운영기간)	22개월 (22개월)	15개월 (8개월)	13개월 (5개월)
운영주체	상4랑협동조합	암사도시재생협동조합	성수지영협동조합
조합원수	80명	31명	110명
찾아가는 도시재생	○	○	○
공간기획워크숍	-	○	○
운영기획워크숍	-	○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시설 폐쇄 여부	○	△	-
코로나19상황으로 인한 시설 폐쇄기간	15개월 이상	방역수칙에 따라 유동적 운영	-
지자체재정지원경험여부	-	○	○
구청지원항목	-	공과금	공과금
구청지원금액	-	6,969,750원	미응답
구청지원기간	-	2020.03~2020.09 (7개월)	2020.07~2021.2 (8개월)
현재(2021.04) 지자체지원여부	-	-	-
층별 주요 프로그램	지하1층:다목적홀 지상1층:어울터 지상2층:포동포동 놀이터, 수유실 지상3층:가온누리터(회의실, 휴게실, 사무실)	지하1층:해피박스, 다목적문화공간 지상1층:來카페, 카페 및 전시공간 지상2층:암사 키움센터- 공동육아모임공간 지상3층:암사공작소-일자리실습공간(가족공예) 지상4층:소모임공간, 공유부엌, CRC 사무실 지상5층:하늘다락- 공동체정원	지상1층:배움(카페) 지상2층:채움(카페) 지상3층:끼움(블록놀이방)-어린이공간 지상4층:빛음(공유주방, 직장인+주민 파티룸) 지상5층:할머니방(경로당) 지상6층:할아버지방(경로당)
주요 수익 창출방법	청소, 건물관리, 연구용역, 카페	평생교육외부강연, 앵커시설 공간대관료, 카페	공공기관 산하시설관리, 수제초콜릿, 카페, 이벤트행사

첫째, 이론고찰 및 선행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반구조화 면접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둘째, 반구조화 면접 후 대상지 3곳에서 공통으로 언급된 키워드를 도출하여, 주민주도 운영 앵커시설에 대한 인식 특성과 관련성이 높은 공통 변수를 도출하였다.

셋째, 각 대상지별 최다 언급 키워드, 주목할 키워드⁴⁾ 및 긍정·부정 키워드의 도출을 통하여,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주민주도 앵커시설 운영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독립변수를 도출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민주도 운영 앵커시설에 대한 현실성 있는 이용자 인식 특성 분석을 위하여 연구자가 선행연구 키워드를 통하여 반구조화 면접설문지를 구성하고, 반구조화 인터뷰 후 키워드 도출을 통하여 변수를 설정하였다.

2) 반구조화 면접 질문지 작성을 위한 키워드 선정

(1) 도시재생사업 앵커시설과 거점기능 관련 키워드

앵커시설 관련 이론고찰 및 선행연구로부터 '지역발전, 커뮤니티중심, 공동체 소속 선택, 공동의 목표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장소, 주민집객, 주변 지역까지 영향, 지역의 중심, 일정한 장소에 집중배치, 지속적 재생, 도시문제 해결, 공동체 중심, 핵의 역할, 쇠퇴지역 환경개선, 공동체회복과 활성화의 구심점, 주민소통, 공동체 활동 공간'의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상기 분류된 키워드 가운데 앵커시설에 관한 인식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키워드로 '커뮤니티의 중심, 주민집객, 지역의 중심, 지속적 재생, 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 구심점, 주민소통 및 공동체 활동 공간'은 앵커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이용자 인식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주요 키워드로 선정하였다.

(2) 주민주도의 자주적 운영관리 관련 키워드

주민주도의 자주적 운영관리와 관련한 이론 고찰 및 선행연구검토로부터 도출된 개념 키워드는 '주민참여, 자발적, 살

고 있는 사람 중심, 스스로 의사결정, 지역사회 문제해결,과정상 주민합의, 주민의견반영, 자긍심 고취, 공동체 핵심가치 설정, 도시권 바탕의 자유로운 활동'이다. 상기 분류된 키워드 가운데 '주민참여, 자발적, 주민의견반영'을 주민주도 운영 앵커시설 만족인식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주요 키워드로 선정하였다.

3) 반구조화 면접 인터뷰 결과로부터 키워드 도출

(1) 상도어울마당

상도어울마당 운영자와의 반구조화 면접을 통해 도출한 키워드에서, 2회 이상 언급한 키워드를 주요 키워드로 선정하였다.⁵⁾ 선정된 키워드 가운데, 주목할 키워드⁶⁾는 '물리적필요성 의문', '공간애착형성', '애향심형성'이다. 상도어울마당 운영자는 "반드시 물리적인 앵커시설을 도시재생사업에서 시설 예산을 계획하여 건립하지 않아도, '그 가게, 그 집'이라는 인지(identification)만 형성되어도 지역 앵커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⁷⁾는 의견이었으며, 주민 스스로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앵커공간과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지며 스스로 가꾸는 현상이 발생했음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긍정키워드 가운데, '주민참여, 주민 공동체 의식 향상, 설립단계 주민참여, 애향심 형성, 공간 애착 형성' 등이 언급되었으며, 부정키워드에서는 '어려움, 운영 어려움, 물리적 필요성 의문, 임시폐쇄' 등이 언급되었다.

긍정키워드로 도출된 키워드 가운데, '연대형성', '변화조짐'의 키워드는 언급 횟수는 낮으나, 앵커시설 운영 기간동안 지역의 변화조짐을 운영자 입장에서 체감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정키워드로 도출된 키워드 가운데, '기여 못 함', '기여장담 어려움', '역할 발휘 어려움', '어려움 체감'의 키워드는 언급 횟수는 낮으나, 운영자가 앵커시설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 하지 못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앵커시설 관련 주요 개념 키워드 도출

앵커시설의 목적	앵커시설의 특징	앵커시설의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발전 커뮤니티의 중심 공동체 소속 선택 공동 목표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집객 주변 지역까지 영향 지역의 중심 일정한 장소에 집중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적 재생 도시문제 해결 공동체 중심 핵의 역할 쇠퇴지역 환경개선 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 구심점 주민소통 및 공동체 활동 공간

표 5 주민주도 자주적 운영 관련 주요 개념 키워드 도출

주민주도 및 자주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참여 자발적 살고 있는 사람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스로 의사결정 지역사회 문제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정상 주민 합의 주민의견반영 지역 자긍심 고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 핵심가치 설정 도시권 바탕의 자유로운 활동

(2) 상상나루데

암사 상상나루데(來) 운영자와의 반구조화 면접을 통하여 도출한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키워드는 ‘앵커시설’, ‘만족’이었으며, ‘협동조합’, ‘필요성’, ‘공동체’ 키워드는 현재 상상나루데 운영자는 앵커시설 운영 주체인 암사 도시재생 사회적 협동조합을 형성하는 과정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졌음과 현재 운영자가 주민들의 시설 만족감과 앵커시설을 통한 공동체 의식 형성에 대하여 주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시사한다.

긍정키워드 가운데, ‘우리가 이끌어야 한다’, ‘만족 높은 편’, ‘주민운영기회’의 키워드는 언급 횟수가 적으나, 주민들의 앵커시설 운영에 대한 의지와 만족도에 대한 운영자의 긍정적 기류 체감을 보여 준다.

부정키워드로 도출된 키워드 가운데, ‘의견 마찰’, ‘의견불일치’, ‘인식 변화 체감 어려움’, ‘앵커시설 홍보 부족’의 키워드는 언급 횟수는 적으나, 앵커시설 설립 및 운영단계에서 주민의견 마찰의 발생 및 설립 초기에 형성된 개인의 긍정 또는 부정인식 고착 상황이며, 이는 홍보 부족으로 기인한 것으로 인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3) 나눔공유센터

성수 나눔공유센터 운영자와의 반구조화 면접을 통하여 도출한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조합원’, ‘협동조합’, ‘주민의견반영’, ‘앵커시설’, ‘다양한’, ‘연계’ 키워드는 나눔공유센터 운영자는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의 역할과 앵커시설과 주민 의견 반영의 관계, 다양한 사업연계에 대하여 주요하게 여김을 시사한다.

긍정키워드 가운데, ‘앵커시설 매우 필요’, ‘주민들의 몫’, ‘고민 시험 장소’의 키워드는 언급 횟수는 낮으나, 운영자 시각에서 도시재생사업에서 앵커시설의 필요성이 매우 높게 인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서 고민하고 활동하는 주체는 주민들이며, 활동의 물리적 장소로서 앵커시설이 주요하게 기능한다는 점을 운영자가 언급하였음을 시사한다.

부정키워드로 도출된 키워드 가운데, ‘질투심’, ‘조합 소속 되지 않은 사람’의 키워드는 조합원 여부에 따라 앵커시설에 대한 주민 인식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4) 최종 독립변수 키워드 도출

최종적으로 ‘주민참여, 주민 공동체 의식 향상, 스스로, 앵커시설, 공간 애착, 설립단계(조성단계), 협동조합, 공간 프로그램, 주민 의견 반영, 주민 중심, 만족, 물리적 필요성, 스스로 커뮤니티 형성, 기여, 인식변화’의 15개의 독립변수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3. 설문 변수

도시재생사업 앵커시설의 필요성 인식, 주민주도 앵커시설에 대한 만족도, 주민주도 운영 앵커시설과 주민공동체 의식의 상관관계에 대한 체감도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변수는 다

표 6 대상지별 최다 등장 키워드 및 연구자가 주목한 긍정키워드·부정키워드

구분	최다 등장 키워드	주목한 긍정 키워드	주목한 부정 키워드
상도어울마당	• 어려움 • 주민참여	• 물리적 필요성 의문 • 공간애착 형성 • 애항심 형성	• 기여 못 함 • 주민의견반영 안됨
상상나루데(來)	• 앵커시설 • 만족	• 주민의견반영 • 주민중심기조 • 주민운영원칙	• 인식변화 체감어려움 • 의견대립 • 공백기
나눔공유센터	• 조합원 • 주민의견반영	• 지속가능한 마을구조 • 주민주도 운영 • 아이디어창고	• 중요시설 • 공간애착증가 • 스스로 커뮤니티 형성
			• (주민주도) 협동조합운영 어렵다

음과 같다.

표 7 최종선정 독립변수 키워드

대상지 공통 주요 키워드	대상지별 최다언급 및 주목한 긍정·부정 키워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 • 주민공동체 의식향상 • 주민의견 • 스스로 • 앵커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견반영 • 주민중심 • 주민참여 • 만족 • 물리적 필요성 • 공간애착 • 스스로 커뮤니티 형성 • 기여 • 주민의견반영 • 인식변화
▼-----키워드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 • 주민공동체 의식향상 • 스스로 • 앵커시설 • 공간 애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단계(조성단계) • 협동조합 • 공간프로그램 • 주민 의견 반영 • 주민 중심 • 만족 • 물리적 필요성 • 스스로 커뮤니티 형성 • 기여 • 주민 인식 변화

첫째, 앵커시설 필요성 인식 특성으로는 앵커시설 설립 사실이 지역의 발전기여로 느끼는 정도 (지역발전에 기여), 내부 프로그램의 지역공동체 발전기여를 느끼는 정도 (공동체 발전 기여), 공간프로그램 구성이 주민 실수요를 충족 했음을 느끼는 정도 (주민수요), 다른 세부사업보다 앵커시설의 설립 중요도의 높은 체감 (상대적 중요도), 층별 고정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앵커시설 및 지역 애착심 증가 체감 (애착 증가), 주민 삶의 질 상승 체감 (삶의 질), 생활 SOC보다 높은 생활 밀접성 (생활 밀접성), 지역 생활의 지속가능성과 연관성 체감 (지속가능성), 미래의 지역 중심 기능 수행 기대 (미래성), 지역 공동체 운영의 물리적 공간으로서 필요 체감 (물리적 필요성) 등 총 10개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주민주도 앵커시설 운영에 대한 만족도의 특성으로 시설설립 및 운영의 적극적인 주민참여 분위기 체감 (주민참여), 운영조직 형성과정 중 주민 화합 체감 (주민화합), 시설 운영조직 형성과정 중 주민의견 적극 반영 (운영조직 과 정 중 주민의견 반영), 앵커시설 설립과정에서의 주민의견 반영 체감 (시설설립 과정 중 주민의견 반영), 공간 프로그램의 주민의견 적극 반영 체감(프로그램 선정시 주민의견 반영), 시설 운영규정이 주민에게 열려있다고 체감(열린 규정), 내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운영 프로그램 만족) 등 7개의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4. 분석 방법

1) 일원배치 분산분석

앵커시설 필요성 인식, 주민주도 앵커시설 운영에 대한 만족 인식에 대해서 대상지별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일원배치 분산분석으로 3곳의 Omnibus 검정이후에는 집단

표 8 설문변수

변수		영문표기		측정(5점 리커트척도)
앵커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필요성 체감도		체감도		1.낮음 - 3.보통 - 5.높음
독립 변수	A1 앵커시설 설립 사실이 지역의 발전기여로 느끼는 정도	기여	지역 발전	1. 비동의 - 3.중립 - 5. 동의
	A2 내부 프로그램의 지역공동체 발전기여를 느끼는 정도		공동체 발전	
	A3 공간프로그램 구성이 주민 실수요를 충족 했음을 느끼는 정도	주민수요		
	A4 다른 세부사업보다 앵커시설의 설립 중요도의 높은 체감	상대적 중요도		
	A5 층별 고정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앵커시설 및 지역 애착심 증가 체감	애착증가		
	A6 주민 삶의 질 상승 체감	삶의 질		
	A7 생활 SOC보다 높은 생활 밀접성	생활 밀접성		
	A8 지역 생활의 지속가능성과 연관성 체감	지속가능성		
	A9 미래의 지역중심 기능 수행 기대	미래성		
	A10 지역 공동체 운영의 물리적 공간으로서 필요 체감	물리적 중심성		
우리지역 앵커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만족도		1.낮음 - 3.보통 - 5.높음
독립 변수	B1 시설설립 및 운영의 적극적인 주민참여 분위기 체감	주민참여		1. 비동의 - 3.중립 - 5. 동의
	B2 운영조직 형성과정 중 주민 화합 체감	주민화합		
	B3 시설 운영조직 형성과정 중 주민의견 적극반영	의견 반영	운영조직	
	B4 앵커시설 설립과정에서의 주민의견 반영체감		시설설립	
	B5 공간 프로그램의 주민의견 적극반영 체감		프로그램	
	B6 시설 운영규정이 주민에게 열려있다고 체감(운영방법)	열린 규정		
	B7 내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운영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만족		

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짝을 지어 비교하는 사후검정을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1종 오류를 적절하게 통제하면서 평균차이를 밝혀줄 수 있는 Scheffe 검정을 적용하였다. 평균비교에서는 각 집단 간 분산이 동질한지 여부에 대한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Levene 등분산 검정을 시행하였다.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었다면 F 통계량과 Scheffe 검정이 적용되고 등분산 가정이 위배되었다면 Welch 통계량을 사용하고 사후검정으로 Dunnett T3 를 적용하였다. 분석도구는 SPSS 22.0을 사용하였다.

표 9 분석내용 및 방법

분석내용	분석방법
주민주도 운영 앵커시설에 대한 인식특성의 차이분석	일원배치 분산분석 (One way ANOVA) (SPSS 22.0)
	Levene 등분산 검정
	OK NG
	F 통계량사용 Welch 통계량사용
	Scheffe 사후검정 Dunnett T3 사후검정

2)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

앵커시설 필요성인식, 주민주도 운영 앵커시설에 대한 만족 인식의 측정도구에 대한 내적 일관성을 확인한 결과 전체적으로 .904 ~ .926 의 범위로 권장 기준값 .7 이상으로 모두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11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

구분	문항 수	Cronbach's α
앵커시설 필요성 인식	10	.926
주민주도 운영 앵커시설에 대한 만족 인식	7	.904

3) 측정도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1) 앵커시설 필요성 인식의 탐색적 요인분석

앵커시설 필요성 인식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KMO 값은 .908 이며 Bartlett 검정은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따라서 상관행렬은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요인 계수는 .638 ~ .840 으로 10문항은 타당하다고 나타났다. 누적 설명량은 60.408% 로 충분한 설명량을 보였다.

표 10 앵커시설 필요성 인식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앵커시설 필요성 인식			요인계수
A1	기여	지역 발전	.638
A2		공동체 발전	.759
A3	주민수요		.729
A4	상대적 중요도		.746
A5	애착증가		.753
A6	삶의 질		.809
A7	생활 밀접성		.820
A8	지속가능성		.836
A9	미래성		.840
A10	물리적 필요성		.819
고유값			6.041
분산의 %			60.408
누적률(%)			60.408
KMO=.908, Bartlett $\chi^2=965.731$, $p<.001$			

(2) 주민주도 운영 앵커시설에 대한 만족 인식의 탐색적 요인분석

앵커시설 설립 과정 및 운영에 대한 인식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KMO 값은 .911 이며 Bartlett 검정은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따라서 상관행렬은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요인계수는 .464 ~ .875 으로 7 문항은 타당하다고 나타났다. 누적 설명량은 61.661%로 충분하였다.

표 11 주민주도 운영 앵커시설 운영에 대한 만족인식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앵커시설 설립 과정 및 운영에 대한 만족 인식			요인계수
B1	주민참여		.804
B2	주민회합		.464
B3	의견반영	운영조직	.875
B4		시설설립	.828
B5		프로그램	.837
B6	열린 규정		.822
B7	운영 프로그램 만족		.826
고유값			4.933
분산의 %			61.661
누적률(%)			61.661
KMO=.911, Bartlett $\chi^2=715.896$, $p<.001$			

IV. 실증분석

1. 주민주도 운영 앵커시설에 관한 인식 특성

1) 지역별 전반적 인식 차이분석

(1) 도시재생사업 앵커시설의 필요성 인식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에서 앵커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에 대한 설문 항목에 대하여 지역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다음 <표15>와 같다.

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9.219$, $p<.001$). 세부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암사동($M=4.08$, $SD=0.94$)과 성수동($M=4.26$, $SD=0.85$)이 상도4동($M=3.50$, $SD=0.97$)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에 암사동과 성수동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를 바탕으로 앵커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암사동, 성수동이 상도4동보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앵커시설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2 앵커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대상지역 인식의 차이

설문항목	지역	N	M	SD	F
도시재생사업에서 앵커시설의 필요성 체감도	상도4동	50	3.50	0.97	9.219*** 2,3>1
	암사동	50	4.08	0.94	
	성수동	50	4.26	0.85	

* $p<.05$, ** $p<.01$, *** $p<.001$

(2) 주민주도 운영 앵커시설에 대한 만족인식

연구 대상지의 주민주도 운영 앵커시설에 대한 전반적 만족 인식을 확인하는 ‘우리지역 앵커시설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의 설문 항목에서 지역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다음 <표16>와 같다.

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11.950$, $p<.001$).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당 항목에서 암사동($M=4.14$, $SD=0.88$)과 성수동($M=3.78$, $SD=0.89$)이 상도4동($M=3.28$, $SD=0.90$)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에 암사동과 성수동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 대상 지역의 주민주도 앵커시설 운영에 대하여 성수(나눔공유센터)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암사(상상나루래), 상도4동(상도여울마당)순이었다.

표 13 지역에 따른 대상지역의 주민주도 앵커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설문항목	지역	N	M	SD	F
주민주도 운영 앵커시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상도4동	50	3.28	0.90	11.950*** 2,3>1
	암사동	50	3.78	0.89	
	성수동	50	4.14	0.88	

*** $p<.001$

2) 지역별 이용자 인식 특성 분석

(1) 도시재생사업 앵커시설 필요성 항목별 인식

본 연구에서 선정한 대상지에 따른 앵커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이용자 인식 차이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15>와 같다. Levene 등분산 검정에서 위배된 A5, A7, A8에 대해서 Welch 통계량을 사용하고 사후검정으로 Dunnett T3 를 적용하였다.

A2 내부프로그램의 지역공동체 발전기여 체감(F=8.727, p<.001), A3 공간프로그램 구성의 주민 실수요 충족 체감(F=6.394, p<.001), A4 다른 세부사업보다 높은 앵커시설의 설립 중요도 체감(F=5.802, p<.001), A5 총별 고정 프로그램이 시설 및 지역 애착심 증가 기여체감(Welch=11.043, p<.001), A6 주민 삶의 질 상승 체감(F=5.245, p<.001), A7 생활SOC보다 높은 생활 밀접성(Welch=3.751, p<.05), A8 지역 생활의 지속가능성과 연관성 체감(Welch=9.730, p<.001), A9 미래의 지역 중심 기능 수행 기대(F=10.086, p<.001), A10 지역 공동체 운영의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필요 체감(F=9.043, p<.001)에서 대상지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에 A1 앵커시설 설립 사실이 지역의 발전 기여체감에서의 유의한 지역별 차이는 없었으며, 비슷한 수준의 인식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2 공동체 발전 기여에서는 암사동(M=4.26, SD=0.69)과 성수동(M=4.32, SD=0.68)이 상도4동(M=3.76, SD=0.82)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에 암사동과 성수동 사이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특히, 앵커시설에서의 프로그램 활동이 주민 공동체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 온다고 느끼는 응답자 체감 평균값은 성수동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수동이 앵커시설 공간 프로그램을 시설 이용자들이 적절히 활용하여 적극적인 수익창출, 리빙랩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A3 주민수요 반영에서는 암사동(M=4.16, SD=0.87)과 성수동(M=4.30, SD=0.74)이 상도4동(M=3.72, SD=0.93)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에 암사동과 성수동 사이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암사동과 성수동의 앵커시설 설립 시 공간기획단 활동 및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공간 프로그램 구성과정의 홍보로 이용자들이 앵커시설의 설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 반영을 인지한 결과로 보인다.

표 14 지역에 따른 앵커시설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

구분	번호	설문항목	지역	N	M	SD	F/Welch
앵커시설 필요성 인식	A1	지역 발전 기여	앵커시설 설립 사실이 지역의 발전기여로 느끼는 정도	상도4동	50	3.88	1.497
			앵커시설의 설립은 도시재생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암사	50	4.06	
				성수	50	4.16	
	A2	공동체 발전	내부 프로그램의 지역공동체 발전기여를 느끼는 정도	상도4동	50	3.76	8.727*** 2,3>1
			앵커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및 활동은 지역 및 주민 공동체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암사	50	4.26	
				성수	50	4.32	
	A3	주민수요 반영	공간프로그램 구성이 주민 실수요를 충족했음을 느끼는 정도	상도4동	50	3.72	6.394*** 2,3>1
			앵커시설은 주민에게 실제 필요한 공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역에 필요한 공간이다.	암사	50	4.16	
				성수	50	4.30	
	A4	상대적 중요도	다른 세부사업보다 앵커시설의 설립 중요도의 높은 체감	상도4동	50	3.50	5.802*** 3>1
			우리지역 도시재생 사업에서 앵커시설의 설립은 다른 세부사업보다 중요도가 높다.	암사	50	3.80	
				성수	50	4.12	
앵커시설 필요성 인식	A5	애착증가	총별 고정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앵커시설 및 지역 애착심 증가 체감	상도4동	50	3.22	11.043*** 2,3>1
			앵커 시설고정 프로그램은 지역 및 시설 애착 증가에 기여한다.	암사	50	4.10	
				성수	50	4.10	
	A6	삶의 질	주민 삶의 질 상승 체감	상도4동	50	3.86	5.245*** 3>1
			도시재생 사업 앵커시설은 지역주민 삶의 질 상승에 필요한 시설이다.	암사	50	4.04	
				성수	50	4.40	
	A7	생활 밀접성	생활 SOC보다 높은 생활 밀접성	상도4동	50	3.78	3.751*
			앵커시설의 설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SOC(주차장, 스마트 신호등, 방범시설 등)설치보다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암사	50	3.80	
				성수	50	4.20	
	A8	지속가능성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연관성 체감	상도4동	50	3.62	9.730*** 3>1,2
			도시재생 앵커시설은 우리지역의 지속가능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암사	50	3.88	
				성수	50	4.36	
앵커시설 필요성 인식	A9	미래성	미래의 지역중심 기능 수행 기대	상도4동	50	3.34	10.086*** 2,3>1
			앵커시설은 10년 후 우리 지역에서 중심시설의 역할을 해야하므로 존재의 필요성이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암사	50	4.12	
				성수	50	4.12	
	A10	물리적 필요성	지역 공동체 운영의 물리적 공간으로서 필요 체감	상도4동	50	3.20	9.043*** 2,3>1
			앵커시설이 도시재생사업지에서 물리적 공간으로 존재하는 것은 재생사업 이후의 주민 공동체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암사	50	3.88	
				성수	50	4.00	

*p<.05, **p<.01, ***p<.001

A4 상대적 중요도 인식 항목에서는 성수동(M=4.12, SD=0.82)이 상도4동(M=3.50, SD=1.02)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에 상도4동과 암사동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다. 암사동과 성수동 사이에서도 차이가 없었다. 특히, 상도4동의 경우 응답자 체감 평균값이 3.50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상도4동의 시설 이용자들은 앵커시설 설립이 도시재생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세부사업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5 애착증가 항목에서는 암사동(M=4.10, SD=0.91)과 성수동(M=4.10, SD=0.93)이 상도4동(M=3.22, SD=1.15)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에 암사동과 성수동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특히, 상도4동에서는 표준편차 1.15를 보이며, 다른 대상지역들과 상대적으로 큰 인식 차이를 보였다. 이는 상도4동에서는 앵커시설이 지역 애착심향상에 의미 있는 기여가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A6 주민의 삶의 질 상승 체감에서는 성수동(M=4.40, SD=0.81)이 상도4동(M=3.89, SD=0.95)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에 암사동과 성수동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암사동과 상도4동 사이의 차이가 없었다. 대상지역 모두 높은 수준의 평균값을 보이며, 상당수의 이용자들은 앵커시설을 통한 삶의 질 상승을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A7 생활 밀접성에서는 사후검정결과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상도4동, 암사동, 성수동 사이의 생활 밀접성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없었다. 대상지 3곳 모두 높은 평균 체감 값을 보인다. 이는, 앵커시설의 설치가 주차장, 스마트 신호등, 방범시설 등의 시설 설치보다 높은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A8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앵커시설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은 암사동(M=3.88, SD=0.90)과 성수동(M=4.36, SD=0.69)이 상도4동(M=3.62, SD=1.09)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에 암사동과 성수동 사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특히, 성수동은 표준편차 0.69로 다른 두 대상지역에 비하여 높은 체감도를 나타냈다. 성수지역에서는 앵커시설이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지하는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시사한다.

A9 미래성 항목에서는 암사동(M=4.12, SD=0.96)과 성수동(M=4.12, SD=0.96)이 상도4동(M=3.34, SD=1.08)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에 암사동과 성수동 사이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특히 상도4동은 앵커시설이 10년 후 지역에서 중심시설 역할로서의 존재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다른 두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인지되고 있음이 표준편차 수치를 통해 나타났다.

A10 물리적 필요성 항목에서는 암사동(M=4.00, SD=1.01)과 성수동(M=3.88, SD=0.98)이 상도4동(M=3.20, SD=1.05)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에 암사동과 성수동 사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상도4동에서는 앵커시설이 꼭 물리적

시설이 아니어도 주민공동체 운영에 큰 지장이 없다는 이용자 인식이 다른 두 대상지에 비하여 높음을 시사한다.

(2) 주민주도 운영 앵커시설에 대한 이용자 만족 항목별 인식

지역에 따른 주민주도 앵커시설 운영에 대한 만족 인식 차이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16>와 같다. Levene 등분산 검정에서 위배된 B1, B2에 대해서 Welch 통계량을 사용하고 사후검정으로 Dunnett T3 를 적용하였다.

B1 앵커시설 설립과정 중 적극적인 주민참여분위기 체감(Welch=13.699, $p<.001$), B3 시설운영조직 형성과정 중 주민의견 적극반영체감($F=16.68$, $p<.001$), B4 앵커시설 설립과정 중 주민의견 반영 체감($F=13.34$, $p<.001$), B5 앵커시설 공간 프로그램 구성 시 주민들의 의견 적극 반영체감 ($F=10.28$, $p<.001$), B6 시설운영규정이 주민에게 열려있다고 체감(운영방법)($F=13.88$, $p<.001$), B7 현재 내부 운영 프로그램 만족(운영프로그램) ($F=7.43$,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B2 앵커시설 운영조직 형성과정 중 주민 화합 체감에 대한 항목은 지역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세부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1 앵커시설 설립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느끼는 주민참여 항목에서는 성수동(M=4.06, SD=0.87)이 암사동보다(M=3.54, SD=0.81) 크고 암사동은 상도4동(M=3.04, SD=1.09)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지역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상지 3곳에서 공간기획단의 활동으로 내부 공간 프로그램의 선정 등에 주민 참여가 이루어졌음에도, 주민 참여의 분위기를 체감한 정도는 지역별로 상이함이 나타났다.

B3 의견반영(운영조직)에서는 암사동(M=3.72, SD=0.83)과 성수동(M=4.16, SD=0.96)이 상도4동(M=3.12, SD=0.92)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암사동과 성수동은 차이가 없었다. 앵커시설 운영조직 형성과정에서 주민의견 대립이 없었다고 느끼는 체감도는 성수지역이 가장 높았다. 성수지역 협동조합이 100% 주민으로 이루어진 초기 12명의 발기인으로 시작하였으며, 이들이 나눔 공유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에 대하여 시설 이용자들이 인지하고 있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암사동은 운영조직 형성 과정 중 주민협의체가 운영권을 포기하여, 운영권이 CRC로 이관되는 과정을 겪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상도4동은 재생사업단계에서 형성된 주민조직이 운영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음에도, 주민의견 반영이 되어 만들어진 앵커시설 운영 조직으로서 이용자들에게 인지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4 의견반영(시설설립)에서는 성수동(M=3.88, SD=0.96)이 암사동(M=3.26, SD=0.88)과 상도4동(M=2.92, SD=0.99)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암사동과 상도4동은 차이가 없었다. 상도4동은 평균값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다소 낮은 만족도를 보인다.

B5 의견반영(프로그램)에서는 성수동(M=3.78, SD=1.07)이 암사동(M=3.30, SD=0.81)과 상도4동(M=2.92, SD=0.94)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암사동과 상도4동은 차이가 없었다. 대상지 3곳의 공간프로그램이 카페, 어린이 공간, 공유부엌 등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주민의견이 반영되어 구성된 공간 프로그램으로 인지되는 정도는 모두 같은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B6 열린규정 항목에서는 암사동(M=3.86, SD=0.97)과 성수동(M=3.60, SD=0.88)이 상도4동(M=2.90, SD=0.97)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암사동과 성수동은 차이가 없었다. 앵커시설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시설로 인지하는 정도는 상도4동이 가장 낮았다. 이는, COVID-19예방 조치로 인한 시설 폐쇄로 연구시점 당시의 이용자들이 시설이용에 제약을 느끼고 있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도4동은 응답자 평균 체감도가 3.0에 미치지 못하며 두드러진 인식 특성을 보였다.

B7 프로그램 만족 항목에서는 성수동(M=3.88, SD=1.00)이 상도4동(M=3.14, SD=1.07)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암사동과 상도4동은 차이가 없었으며, 성수동과 암사동 사이에도 차이가 없었다. B7항목은 앵커시설의 활용방법 공유 및 지역 주민을 위한 융통성 있는 운영에 대한 체감을 확인하는 항목이었으며, 상도4동에서 가장 낮은 체감도를 보였다. 상도 4동 앵커시설이 장기적으로 임시 폐쇄된 상황에서 시설 이용자들의 시설이용에 대한 프로그램 만족 체감이 낮은 점이 투영된 결과로 보인다.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는 서울시 근린재생 일반형 사업완료 지역의 주민주도로 운영되는 도시재생지역 앵커시설에 대한 지역별 이용자 인식특성을 앵커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주민주도 운영 앵커시설에 대한 만족도로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이용자 인식조사 시점이 COVID-19 팬데믹 상황과 근린재생 사업의 전환기라는 측면에서, 주민주도 100%운영의 앵커시설에 대한 현실성과 가능성을 확인하여, 도시재생 사업에서 앵커시설의 안정적인 주민주도 운영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함에 의의가 있다.

첫째, 분석결과, 앵커시설의 필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는 지역과, 가장 낮은 만족도를 체감하는 지역이 상도 4동으로 일치되어 도출되었다. COVID-19 팬데믹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공공행정의 적절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진 암사동, 성수동과는 달리 상도4동은 100% 주민주도로 운영되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재정 운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앵커시설의 필요성 체감도와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앵커시설 운영에 대하여 공공의 잦은 재정지원은 주민주도 운영에서 지양해야 하지만, 앵커시설이 공공의 자본으로 건립되므로, 그 소유권이 공공에 있어 100% 주민주도의 자유로운 운영에는 제약사항이 존재함을 고려하여, 시기적절한 운영지원 검토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둘째, 앵커시설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대상지 3곳 모두에서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인지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재생 사업에서 앵커시설 설립은 필요성이 있는 사업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대상지 3곳 가운데, 가장 낮은 앵커시설 필

표 15 지역에 따른 주민주도 앵커시설 설립 과정 및 운영에 대한 만족 인식 차이

구분	번호	설문항목	지역	N	M	SD	F/Welch
주민주도 앵커시설 설립 과정 및 운영에 대한 만족 인식	B1	주민 참여 앵커시설 설립과정 중 적극적인 주민참여분위기 체감 앵커시설의 설립과정에서 주민 참여는 적극적으로 이루어 졌다.	상도4동	50	3.04	1.09	13.699*** 3>2>1
			암사	50	3.54	0.81	
			성수	50	4.06	0.87	
	B2	주민 화합 시설운영조직 형성과정 중 주민화합체감 앵커시설 설립과정에서 주민의견 대립은 발생하지 않았다.	상도4동	50	3.26	0.78	1.542
			암사	50	3.56	0.93	
			성수	50	3.42	1.14	
	B3	의견 반영 운영 조직 시설 운영조직 형성과정 중 주민의견 적극반영 체감 시설운영조직은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주민 합의로 형성된 조직이다.	상도4동	50	3.12	0.92	16.68*** 2,3>1
			암사	50	3.72	0.83	
			성수	50	4.16	0.96	
	B4	의견 반영 시설 설립 앵커시설 설립과정 중 주민의견 반영체감 우리지역 앵커시설의 설립과정에 만족한다.	상도4동	50	2.92	0.99	13.34*** 3>1,2
			암사	50	3.26	0.88	
			성수	50	3.88	0.96	
	B5	프로그램 공간프로그램의 주민의견 적극반영 체감 현재 앵커시설의 공간프로그램은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되었다.	상도4동	50	2.92	0.94	10.28*** 3>1,2
			암사	50	3.30	0.81	
			성수	50	3.78	1.07	
	B6	열린규정 시설운영규정이 주민에게 열려있다고 체감(운영방법) 주민들은 앵커시설을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시설로 인지한다.	상도4동	50	2.90	0.97	13.88*** 2,3>1
			암사	50	3.60	0.88	
			성수	50	3.86	0.97	
	B7	프로그램 만족 현재 내부 운영 프로그램 만족 (운영프로그램) 현재 우리지역앵커시설의 운영프로그램은 적절한 편이다. [시설 활용방법 공유, 지역주민을 위한 융통성 있는 운영 등]	상도4동	50	3.14	1.07	7.43** 3>1
			암사	50	3.54	0.79	
			성수	50	3.88	1.00	

p<.01, *p<.001

요성 인식과 만족도를 보인 상도4동에서는 앵커시설이 꼭 물리적 시설이 아니더라도 주민공동체 운영에 큰 지장이 없다는 이용자 인식이 다른 두 대상지에 비하여 높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물리적인 앵커시설 설립 뿐 아니라, 앵커시설의 기능을 수행하는 온라인 앵커 플랫폼의 구축 및 홍보가 보다 현재 보다는 비중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함을 제언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앵커시설이 정상적인 개방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가 진행되어, 대상지별 시설 개방 상황이 상이한 점이 통제 변수로 적용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또한, 앵커시설의 입지의 경우, 나눔 공유센터는 서울 숲 인근의 방문객들이 많은 공간에 있으므로, 운영 수익이나 접근이 용이한 이점이 있음도 간과할 수 없고, 상도4동은 한적한 주택가, 암사동은 암사종합시장 인근의 다세대 주택가에 위치한 사향에 대한 부분을 본 연구결과에서 통제변수로 반영하지 못한 점, 양적 설문 응답 유효부수가 대상지역별 50부에 그치고, 응답자의 조합 가입 여부에 대한 사항이 고려되지 않은 채, 설문이 회수되어 데이터 표본 결과 수치 분포의 정확도에 서 한계가 있다.

주

- 1) 2021년 4월 19일부터 약 2주간 총 165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직접 회수하였고, 이 중에서 165부 회수 후 일관성지수가 결여된 상도4동 (상도어울마당) 5부, 암사동(암사 상상나루래) 3부, 성수동(나눔공유센터) 7부를 제외한 150부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 2) 정형빈 사무국장 - 2021.04.19 반구조화 인터뷰 내용 중
- 3) 정조합원 및 예비조합원 수, 박영훈 사무국장 - 2021.04.21 반구조화 인터뷰 설문 응답내용 중
- 4) 운영자의 시각과 이용자의 시각이 다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키워드
- 5) 주요 키워드 기준 : 인터뷰 전체 시간 동안 2회 이상 언급 (상도4동 - 52분 진행)
 - * 2회 이상으로 설정한 근거 : 면접자가 반복 언급한 키워드는 면접자의 강조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본 연구에서 정의
- 6) 운영자의 시각과 이용자의 시각이 다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키워드
- 7) 상도 어울마당 운영자 구술내용 (인터뷰 녹음 러닝 타임 24분26초~25분03초)

인용문헌 References

국내문헌

1. 김현하, 임종엽. (2005). 단위와 커뮤니티의 해석을 통한 현대 주거공간의 비정주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1(1), 27-34.
2. 정송이, & 이명희. (2013). 커뮤니티 아이덴티티를 통한 지역 경관색 연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문화마을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88-89.
3. 노현준, & 전용석. (2021). 도시재생 거점시설 계획 및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6(1), 59-68.
4. 임성호, 정철모. (2019).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성남시 주택매입사업을 중심으로 -. 주거환경, 17(2), 157-182.
5. 장문기.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생활거점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 국내학위논문 계명대학교, 2019. 대구
6. 김대중.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특성 및 만족도 분석 연구." 국내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서울
7. 정두순. (2018). 춤과 춤꾼의 도시에 대한 권리(le droit a la ville)와 자주관리(autogestion)를 통한 공간실현의 가능성. 문화와 정치, 5(1), 239-268.
8. 이라영, & 신남수. (2009). 공동주택단지의 물리적 환경 구성 요소와 거주자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공동주택단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5(3), 235-246.
9. 박경옥, & 정지인. (2015). 도심 마을공동체 내 거주자의 상호작용과 공동체 의식. 한국생활과학회지, 24(2), 185-204.
10. 이상광, 임준홍. (2000).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도심공간 정주성 제고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1(2), 1-12
11. 문경주, 김수영, 장수지(2015). 다층분석에 의한 지역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지역사회연구, 23(1), 115-142.
12. 이원훈·이창수(2007), "미래지향적 커뮤니티 시설 유형설정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42(4), 95-113
13. 성희자, 이강형(2013). 농촌지역 주민의 사회참여와 공동체의식이 "배타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4(4), 315-332.
14. 천현숙. (2004). 대도시 아파트 주거단지의 사회자본. 「한국사회학」 38(4), 215-247.
15. 여광현(2014).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공동체 의식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337-361.
16. 김동근. (2011).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주민의 참여의식 분석. 국토계획, 46(3), 5-17.

도시재생사업의 주민주도 운영 앵커시설의 필요성과 만족에 관한 이용자 인식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 5개 근린재생 일반형 사업지역 중 상도4동, 성수, 암사를 대상으로-

17. 맹다미, 백세나(2017).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주민공동체 활성화 정책과 주민활동 특성 분석.서울도시연구,18(3),1-21.
18. 권기덕, 정남식(2020).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구성요소가 주민참여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용산구 해방촌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한국지역개발학회지,32(1),89-117.
19. 김권수. (2014).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이 주민의 마을만족도와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공공사회연구, 4(1), 66-92.
20. 김수진, 진영호. 2020. 도시취약지역 공동체기반의 거점공간 운영방안. 국토연구원
21. 김두순, 배성의. (2018).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를 위한 농촌 현장포럼 프로세스 개선. 지역사회연구, 26(3), 215-235.
22. 최소영. "민관협력의 관점에서 주민주도에 의한 대전차방호 시설 공간재생 추진과정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7. 서울
23. 이동훈(2017).일본의 주민주도형 저층주거지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17(6),187-192
24. 이재완. (2014).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주민참여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7(4), 409-437.
25. 박현정.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평가 실증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서울
26. 최석현(Seok Hyeon Choi), 왕혜숙(Hye Suk Wang). (2019). 지역사회 참여의 미시적 기반에 관한 연구. 동서연구, 31(4): 101-133
27. 강현수,2009, '도시에 대한권리 개념' 및 관련실천운동의 흐름,p.49
28. 박세훈,2016. 도시재생의 동력으로서의 사회적경제 : 운영실태와 과제, 국토, 409,18-25
29. SPSS활용 통계조사 방법론
30. 암사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서
31. 서울, 도시재생 앵커시설이야기, 2019 서울형 앵커시설 기록화,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32.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주민참여형 앵커시설 기획안내서(2019),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33. 주민참여형 앵커시설 기획안내서(2019),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34. 희망지사업 주민참여 주민역량강화 안내서, 도시재생+주민.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35.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근린재생일반형)&희망지사업 추진현황,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36. 함께 읽는 도시재생 - 암사 바람이 분다,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2019.09)
37. 함께 읽는 도시재생 - 도시재생 4년 그 현장 속으로(상도4동), 서울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2019.09)
38. 함께 읽는 도시재생 -성수 지명을 꿈꾸다,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2019.09)

웹 사이트

1.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surc.or.kr/>)
2. 성수동 도시재생 지원센터 블로그
3. 네이버 국어사전(<https://ko.dict.naver.com/#/main>)

국외문헌

1. Nisbet, R.A.(1962).Community and Pow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 McMillan,D. W. & Chavis,D. M.(1986). Sense of communityL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6-23.
3. Sarason, S.B.(1974).The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Prospects for a Community Psychology, Jossey-Bass: San Francisco.
4. Cunningham, J. V. (1972), "Citizen Participation in Public Affair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Vol.32, p.589-602.
5. Lefebvre H. (1968). Le droit à la ville. Paris: Anthropos.

단행본

1. 상도4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서
2. 성수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서

논문집 발간계획 및 투고 안내

- 1) 한양대학교 국토도시개발정책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는 국토 및 도시개발과 관련한 주제에 관한 논문, 논설, 설계작품 등의 연구 논문을 담은 연구소의 논문집(제목: 국토도시공간연구)을 년 1회 발간한다.
- 2) 본 연구소의 소속 연구원 및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와 도시대학원의 재학생과 졸업생은 본 논문집에 연구논문 및 기타 관련 기사를 투고할 수 있다. 기타 외부 기관의 사람들이 원고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게재료를 지불할 수 있다.
- 3) 투고 논문은 다른 학회지나 일반 간행물에 발표하지 않은 저자의 원저나 창조적 작품이어야 하며,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수시로 접수한다.
- 4) 본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의 사용도 가능하다.
- 5) 설계논문은 설계이론이나 설계결과가 독창적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각종 설계요소의 분석, 설계이론의 결합, 설계안 도출과정 등이 서술되어야 한다. 내용은 현황분석, 설계이슈, 구상안 검토·발전, 대안 평가 등의 형태로 전개될 수 있다. 단, 설계안에 대해서는 분석, 계획도면이나 투시도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 6) 논문투고는 전자우편을 통한 온라인 투고를 원칙으로 하되, 파일의 용량이 큰 경우에는 CD-Rom, 인터넷상의 저장매체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7) 논문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는 한글 프로그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Microsoft Word) 프로그램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편집세부사항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 8) 논문에 포함되는 그림은 편집한 상태의 크기에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며, 논문 텍스트에 포함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경로를 지정하여 그림만 따로 저장하여 제출할 수 있다.
- 9) 논문의 게재 여부는 논문심사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논문게재는 심사에 통과된 원고를 우선으로 한다. 논문 게재자에게는 논문집 별쇄본 10부를 제공하며 추가로 별쇄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사전에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
- 10)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논문집 편집세부사항

- 1) 논문 편집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도시계획학회지의 규정에 따른다.

국토·도시개발정책연구소 논문집 제16권 제1호

서기 2021년 6월 발행

〈 비 매 품 〉

발행인 김 흥 배
발행처 국토·도시개발정책연구소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222 한양대학교 과학기술관 207호

전화 02-2220-0329

팩스 02-2291-4739

이메일 ppj98788@hanyang.ac.kr

홈페이지 <http://rispp.hanyang.ac.kr>

Journal of Planning and Spatial Science

논 문

- 광주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 사업의 편익추정에 관한 연구
- 동종업종과 이종업종의 군집이 편의점 매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서울시를 중심으로 -
-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 관광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 다지역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여 -
- 도시재생사업의 주민주도 운영 앵커시설의 필요성과 만족에 관한
이용자 인식 특성에 관한 연구
- 서울시 5개 근린재생 일반형 사업지역 중 상도4동, 성수, 암사를 대상으로 -

연구소 소식

- 논문집 발간 계획 및 투고 안내

The Research Institute of Spatial Planning and Policy

222 Wangsimni-ro, Seongdong-gu, Seoul 04763, Korea